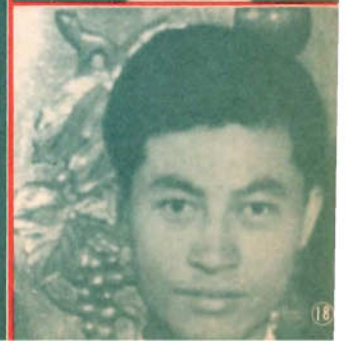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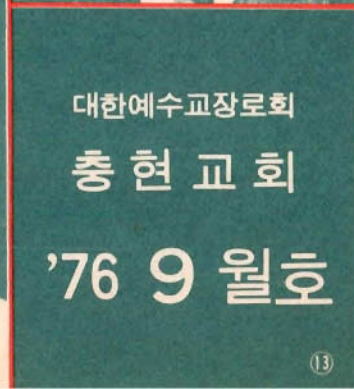


월간 충현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 교회
'76 9 월호

남은 자가 됩시다

성경 / 이사야 28장 5 절



뜨거운 풀뭇불 속에서 끝까지 남는 은과 금이 귀한 것처럼, 바람에 날리지 않는 알곡이 귀한 것처럼, 끝까지 승리하고 남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김 창 인 목사(당회장)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8장 5 절에 보면, “그 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남은 백성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남는 것들은 귀합니다. 모든 잡것들 다 타 없어지는 뜨거운 풀뭇불 속에서, 끝까지 남는 은과 금은 귀합니다. 늦은 가을 거세인 찬 바람이 몰아쳐 올 때에도 바람에 날리지 않는 알곡은 귀합니다. 이와 같이 끝까지 남는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남는 귀한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취하는 자들의 특성

먼저 평안할 때에 자기 위치를 지키며 성도의 책임을 다하여야 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안할 때에는 너무나 방심하고 그 무엇에 취하기가 쉽습니다. 술에 취하는 사람이 되기 쉽고, 권세에 취하는 사람 되기도 쉽고, 또 물질에 취한 사람이 되기도 쉽고, 세상 향락에 취한 사람이 되기도 쉽습니다.

평안할 때 이렇게 취한 사람들은 쓸 데 없이 자기 자랑만 하고, 약자를 업신 여기는 가시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의인을 대적하는 말이나 웃사람을 거역하는 불손한 말을 하며, 자기의 기분에 날뛰는 한심한 사람이 됩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평안할 때에 그 무엇에 취해 정신이 몽롱해진 자들은 사람이 갈 길을 바로 찾지 못하고 비틀거리다가, 영과 육이 아울러 멸망의 함정에 거꾸러지기를 잘 합니다. 또한 평안할 때에 술과 권세에 자신의 지식과 물질에 취한 자들은 그의 건강한 몸과 당당한 권세와 풍부한 지식이나 특출한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망할 못된 일만 열심으로 찾아 하는 안타까운 일이 많습니다.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께 욕이 되는 일이나, 국가에 손해 되는 일이며, 교회에 폐를 끼치고, 가문에 망신을 시키고, 결국에는 자신과 자손들을 고생시킬 일만 골라 하는 것이 취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환난날의 참된 인격자

우리들은 국가의 소비상시기에 처하여 함부로 취한 자가 되지 말고 오히려 정신을 바짝 차리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선한 일을 하려는 정성을 기울이는 신자가 되고 국민이 되어, 평안할 때에 모든 유혹을 담대히 물리치는 정신을 가다듬는 남은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또 우리가 원치 않는 환난날이라도 악마의 바람에 날려 버릴 쪽정이 같은

인생은 되지 맙시다. 하나님만 믿는 진실한 신앙을 가진 국민으로서 평안할 때에 미리미리 준비를 갖춘 알맹이가 있는 신자가 되고 또 국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남아 있는 참된 인격자가 되려면 사람을 믿는 생활과 사신우상과 미신을 따라가던 생활을 깨끗하게 청산하여 버리고 전능하옵신 하나님만 믿는 생활로 완전히 전환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몸과 마음이 약한 자들이요 또 무엇이 좀 있으면 교만하고 잔인하고 물인정하거나 게으른 자가 되기 쉽고, 또 무엇이 좀 없으면 공연히 시기하거나 남을 원망하는 비루한 자가 되기 쉽습니다. 또 누구를 막론하고 잠시 후에 이처럼 변하다가도 때가 되면 죽는 인생들이니, 이런 사람을 믿는 사람치고 환난날에 지조가 있는 남은 백성은 되지 못합니다.

남아 있는 성도가 되려면

더우기 미신을 따르거나 사신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찌 환난날에 지조있는 국민이 되겠습니까? 그 려고로 우리들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과 지혜로 섭리하시되, 세세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 책임에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람만이 천하가 변하여도 변함없이 남아 있는 성도가 되며 남아 있는 애국자로서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일 자기의 욕심이나 따르고 자기의 고집만을 앞세우며,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정세나 세상향락에 정신없이 따르거나 미신에 끌리어 간다면 바람에 날리는 쪽정이처럼 한 문의 값어치도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평안할 때에 감사할 줄 알고, 그 무엇에 취하는 자 되지 말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어 기회를 놓침 없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 원치 아니하는 환난날이 올지라도 알맹이 없는 쪽정이처럼 멸망의 구렁텅이에 날리워 가는 일이 없도록 전능하옵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믿도록 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승리자로 남아 있고 언제나 성공하는 합격자로 남아 있는 복된 실력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십시오.

성도 여러분이여! 이 세상 이별하는 그 날에는 다 천국에 들어가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고 영생복락을 누리시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월간 증현

9월의 행사

- 5/계직회·남전도회 임원회·권사회 임원회·재정위원회
- 6/성경학원 개강·해외이주자 교육
- 10/동부·서부지역 구역요원 훈련
- 12/월간증현 9월호 발행·남전도회 월례회·권사회 월례회·여전도회 임원회·월간증현 편집위원회
- 13/산업전도회 월례회
- 17/남부·북부지역 구역요원 훈련
- 19/여전도회 월례회·전도위원회·재정위원회
- 20/교육위원회
- 26/주교 각부월례회·구역권찰회
- 28/경기 당회

9월호 차례

- 〈권두언〉「주는 교회」로서의 교회/주잔 4
- 〈설교〉 남은 자가 됨시다/김창인 목사 2
- 〉특집〈 우리교회의 과거·현재·미래
과거—물불 안 가린 그 열정/조선근 집사 ... 5
현재—그 분석적 조명/오대용 7
미래—그 주인공들의 이야기/이형수 10
- 〉특별기획〈
선한 청지기의 생활/경상우 목사 28
증현교인의 신앙명세서/정은표 집사 34
- 〈신학해설〉 신복음주의란 무엇인가(2)
/김차생 집사 14
- 〈조적신학(7)〉 종말론에 대한 이해/이정웅 18
- 〈특집화보〉 증현교회 당회장
김창인 목사/이형수 20
- 〈구역장노무트(8)〉 유동성에 처한
구역운영/백성룡 목사 27
- 〈찬송가해설(8)〉 내 평생에 가는 길 13
- 〈전도보고문〉 보람 안겨준 전도여행/박명련 16
- 〈캘레인〉 뜨겁게 봉사하자 15
- 〈칼럼〉 생일을 축하합니다/이형수 15
- 〈책소개〉 기독교윤리/조선근 집사 13
- 〈10월 구역공과〉 주기도문 18
- 〈증현교회 연혁〉 3
- 〈구역소식〉 27
- 〈교회뉴스〉 40
- 〈편집후기〉 표지설명 42
- 〈사건으로 보는 이모저모〉 43
- 〈결신자 소개〉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44

□ 방송전도 □ 김창인 목사 방송설교 : 아세아
방송(1570K). 매주 월요일 오후 7시30분.

“ “ “ “ “ “ 증현교회 연혁

- 1953년 9월 6일 : 18명이 첫 예배(시내 인현동).
- 1953년 10월 26일 : 증무로 5가 36번지로 교회이전.
- 1953년 11월 1일 : 유년주일학교 개교.
- 1953년 11월 24일 : 기독교학생면허회 조직.
- 1953년 12월 12일 : 본관 건축 착공.
- 1953년 12월 16일 : 초대 제직회 조직.
- 1954년 1월 3일 : 주보 창간.
- 1954년 1월 17일 : 여전도회 조직.
- 1954년 5월 8일 : 당회 조직.
- 1954년 11월 28일 : 청년환양대 조직.
- 1955년 12월 17일 : 본관 준공예배.
- 1956년 8월 12일 : 통일교회를 증현교회로 개칭.
- 1956년 9월 30일 : 첫 개척교회(시내 돈암동 성암교회).
- 1957년 1월 2일 : 남전도회 조직.
- 1958년 9월 30일 : 김창인 목사 위임식.
- 1961년 3월 7일 : 별관 건축 착공.
- 1961년 9월 28일 : 별관 준공.
- 1962년 12월 16일 : 우리교회 표어로 「천국 일꾼을 키우자」 설정.
성구로는 시편 18:1 선정.
- 1963년 7월 7일 : 2부예배 실시.
- 1963년 9월 19일 : 교회설립 10주년 기념예배
(증현 10년사 발간).
- 1963년 9월 25일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가입.
- 1963년 11월 29일 : 제 1회 겨울어린이성경학교.
- 1963년 12월 1일 : 부목사제도 설정.
- 1966년 5월 21일 : 제 1회 경로회(정년부 주최).
- 1967년 8월 13일 : 방송전도(H.L.K.X.) 시작.
- 1968년 9월 3일 : 교회설립 15주년·김창인 목사
선역31주년 기념예배.
- 1968년 9월 15일 : 경기도 광주에 교회표지 43,530
평 매입.
- 1968년 11월 24일 : 해외복음선교회 조직.
- 1970년 1월 1일 : 성경통신학교 개교.
- 1970년 12월 30일 : 교회 신축대지 20년 동안에
9,000평 매입.
- 1971년 9월 9일 : 선교사 서단수 목사 내외 인도
대시대로 파송.
- 1972년 4월 30일 : 「증현」지 창간.
- 1973년 7월 29일 : 증현성경학원 설립.
- 1973년 9월 6일 : 교회설립20주년 기념예배
(증현20년사 발간).
- 1974년 1월 6일 : 3부예배 실시.
- 1975년 4월 13일 : 권사회 조직.
- 1975년 4월 30일 : 대주일 특별집회 실시.
- 1975년 10월 9일 : 제 1회 증현교회 친교대회.
- 1975년 12월 14일 : 전도위원회 조직.
- 1976년 4월 30일 : 첫 평신도선교사로 유병세 집사
일본에 파송.
- 1976년 7월 6일 : 산업전도회 조직.
- 1976년 8월 6일 : 선교사 이연호 목사 흥해지역
에 파송.

「주는 교회」로서의 교회

—교회설립 23주년에 붙여서

마태복음 24장 3-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다. 첫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5절)이다. 최근 많은 유사종교가 범람하고 자칭 예수 또는 구주라고 말하는 자들이 여기 저기에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가 아닌가.

두번째는 난리와 난리 소문(6절)이다. 월남이 적화된 이후, 인도네시아반도를 통하여 들려오는 난리의 소문은 물론이고, 아프리카의 기독교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앙골라가 적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판문점의 공동경계구역에서 미군 장교 두사람이 살해됨으로써, 그러지 않아도 땅굴 및 무장공비 남파사건으로 긴장된 이곳에 또 다시 전쟁의 어두운 구름이 몰아쳐 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이 바로 말세의 증거이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세의 증거로 기근과 지진을 말씀하셨다. 얼마 전, 유우엔 사무총장의 입을 통하여 매일 기근으로 1만명의 사람이 제3세계에서 죽어 간다는 말을 들었거니와, 지금 이 세계는 식량난으로 인한 전쟁이 돌입한 것이 사실이며, 더군다나 며칠 전에는 중공의 당산과 북경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10만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고 하니, 주님의 예언이 실현되고 있음이 틀림없다.

더우기 예수님은 말세의 마지막 증거로서 불법의 성행(12절)을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불법은 하나의 세계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만도 국교 수입의 10퍼센트가 불법한 자들의 벌금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이며, 국내에서도 매년 범죄율이 증가일로에 있다. 일본에도 타나카(전 일본수상)의 록히드 뇌물사건으로 불법이 얼마나 성행·만연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은 주님께서 이미 예언하신 것이므로 새삼스럽게 놀라울 것이 못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며,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등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다”(살후 2:2). 다만 “중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도록(살후 3:12) 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의 예언이 적중하고 있으나, 아직은 그 절정적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사명은 자명해진다.

첫째로,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마 24:42,43)는 경고의 말씀대로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국가적으로도, 지금 우리는 위급한 시기에 있는 터에, 성도들은 앞장서서 이 민족의 향락과 안일의 잠에서 깨어 일어나도록 나팔을 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말세에 처한 우리 중현의 성도들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다. 전에도 지적한 바 있거니와, 우리 중현의 사명은 보수주의 교단의 보루로서, 무엇보다도 민족 복음화 센터의 역할, 다음에는 동남아 복음화를 위한 안디옥교회의 역할,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위한 제사장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치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처한 우리 중현의 사명이며, 한국 교회의 사명이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못자리」가 되어야 한다.

생각해 보면, 우리 중현교회가 설립된 지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큰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가 이처럼 부흥·발전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네시아·홍콩지역·일본·홍콩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며칠 전에는 미국의 중심부인 뉴요우오크에 중현교회 지교회가 37명의 대다수 중현 교인들에 의하여 세워진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다. 머지 않아,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에도 지교회가 세워지리라 하고 하니, 이 얼마나 반가운 일인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해야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눅 12:48)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설립 23주년을 맞는 우리 중현교회는 이 중차대한 시점에서 새로운 작요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자각하고 보다 중성되게 봉사해야 하리라고 믿는다. 분명 우리는 많이 받은 자요 많이 받은 자이므로, 「주는 교회」로서의 자신을 깨닫고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했거니와, 앞으로 더 많이 봉사해야 할 것이다.

<주간>

충현의 과거, 물불 안 가린 그 열정

조 선 근 집사

(월간충현 편집위원 · 교육위원)

어느새 스물 세 돌을 맞은 충현교회가 되었다. 설립 기념일이 돌아올 때마다 선행하는 가슴을 누를 길이 없다. 충현교회에 대한 끝없는 고마움—그 속에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교회이야기가 하고 싶어진다. 우리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설립 전후한 초창기 역사는 어떠한가? 이는 우리에게 한 흥미있는 화제가 아닐 수 없다.

환상의 사람과 피난성도들과

때는 6·25동란이 있는 이듬해 봄이었다. 피난지 부산에 내려간 김창인 목사는 그곳 서부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다. 그리 넓지 않은 2층 예배처에는 주일마다 교인들이 증가하여 300 여명이 되었다. 건물자체의 위험도와 계속 불어나는 교세로 예배당 신축이 불가피했으나, 따로 교회설립을 계획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일은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곧 뜻을 같이하는 피난성도들과 더불어 1952년 6월, 그곳 동대신동 1가에 대지 99평을 구입, 72평의 성전건축에 착공하여, 그 해 11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른바 부산의 통일교회이다.

빈주머니다 싶이 한 피난성도들의 능력으로서는 실패와 실패와 정성으로 이룩한 교회였다. 그 교회는 이후 피난민의 동불이 되어 낙망 중에서도 소망을 주는 건실은 자의 인도자가 되어주었다. 그 때 김목사는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에도 통일교회를 세우고픈 마음이라는 꿈같은 이야기를 가끔 하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환상의 사람이라고, 어느 성도가 회고한다. 아무튼 이 교회에 헌신한 일꾼들 중 대다수가 훗날 충현교회를 세우는 데에 공헌한 것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

전쟁의 상처 어루만지며

1953년 늦은 봄이었다. 수북의 기운이 점점 무르익어 감에 따라, 각처에 흩어졌던 서울시민들은 저마다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서울로 돌아갈 준비에 바빴다. 그 무렵, 김창인 목사를 중심으로 피난성도들의 수복대책도 자연 활발해, 기도하며 의논한 끝에 김천준 장로(공로장로, 당시엔 집사)를 먼저 상경시켜 서두르게 하였다. 유아제품업을 하던 그는 낮에는 비교적 시간을 낼 수 있는대다가 어떤 사망감같은 것도 지닌 열심있는 분이었다.

그는 상경하자마자 교회설립기지를 물색하는 한편, 8월이 되면서는, 임시로 나간 성동구 소재 성산교회에서 홍수정 · 이학주 · 한명덕 등 여러분과 두 차례 준비모임을 가졌다. 그 때에, 9월 첫 주일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설립예배를 보자고 주장하며 나선 이는 이학주 권사였다.

1953년 9월 6일. 그 날은 주일, 때는 오후 3시경이었다. 중구 인현동에 자리잡은 한명덕 권사 댁 2층에는 연락이 닿아 온 사람이 18명이나 되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이 연상되는 그 자리에서, 당시 원경식 집사가 인도한 그 첫 예배의 참석자들은 새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는 한편, 이 교회의 앞날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이들은 곧 남성도 김천준 · 홍수정(미국) · 원경식, 여성도 고 한명덕 · 이학주 · 계수익 · 성귀명 · 김인덕, 남학생 김성주(미국) · 오진국 · 이춘선(브라질) · 김재웅 · 김창호(미국) · 안종욱 · 임광식(미국), 여학생 박경숙(외국) · 김은주 · 백영숙 등 여러분이었다.

물불 가리지 않은 그 열심

이렇게 시작은 되었으나, 피난성도들의 열정 지도자 김창인 목사의 지병(持病)의 악화로, 부산에서 들려오는 소리란 희망적인 것이 못되었다. “우리는 얼마나 울며 하나님께 호소했는지 몰라요. 김목사님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매어달렸어요. 교회 마루바닥에서 때로는 남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18명중한 사람이 전해주는 가슴아픈 사연이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의미에서든 절망이란 없는 법이다. 더우기나 김목사의 건강은 기적처럼 호전되어 교우들의 눈물을 씻어 주었다. 교회는 6·25동란 전에 김목사가 시무한 장충교회 교인들이 그 전 건물을 정리하여 보내온 돈으로 대지와 건물(현 위치의 일부)을 계약하고 분할하는 중 김목사가 상경함에 따라, 잠시 울지로 2가 이창옥 권사 댁으로 예배장소를 옮겼다가, 두 주일 뒤인 10월 26일 마침내 지금의 장소인 충무로 5가 36번지로 이전했던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곳은 조선극장과 대원각이란 유명한 요리집이 있다가 불타버린, 음란과 방탕의 소굴로 알려진 곳이다(충현20년사 일부 수정). 바로 이 터 위에 전리의 동대인 충현재단이 우뚝 그 웅장한 모습을 나타낼 줄이야, 6천여 성도가 구름같이 들려드는 교회가 들어설 줄이야 그 누가 생각하였겠는가.

새로 옮긴 예배처 관자집은 이어진 세 건물(14평)로도 급증하는 교인수를 수용할 수 없어, 몇 차례 연쇄 천막(60여평)으로 임시대책을 세웠다. 그렇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물은 천막 안으로 새어들어와 새 예배당을 짓자는 논의가 이 때부터 더 강렬해졌다. 그런



〈교회신축에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참여하였다〉

때, 겨울철이 다가오고 교인들의 숫적인 증가로 건축공사에 긴급성을 띠지 않을 수 없었다. 드디어 같은해 12월 12일에는 새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부흥 회담과 포부 속에 연건경 294명의 역사적인 본관건축에 임했던 것이다.

1954년을 맞은 교회는 건축실행위원회를 조직하고 곧 새 성전을 위한 특별헌금을 작성하였다. 교회신축에 대한 염원이 크면 클수록 마음처럼 헌금할 수 없는 교우들은 발을 동동 굴 뿐이었다. 아직 많은 교우들이 생활안정이 되지 않은 때문이었다. 교우들 중에는 새 예배당 짓기 전에는 자기 집 마련도 사양한다는 굳은 결의를 보이는가 하면, 뜰나는 대로 건축장소에 달려와 도우려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방과 후, 중·고등 남녀 학생들은 물론 국민학교 어린이들까지도 손발을 걸어들어주고 어깨로, 머리로, 손으로 운반하는 등 교회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덤벼들었다.

주님 은혜로 세워진 교회당

그러나 위약 방대한 건축사업이었으므로 재정에 있어서는 여간 곤경을 겪지 않았다. 30여 교우들은 합심하여 기도하는 한편, 정성을 모아 특별헌금과 수시 헌금으로 마련하던 중, 부산 통일교회가 얼마간의 특별연보를 보내와 건축공사에 큰 진전을 보게 되었다.

1955년에 들어서서도 건축공사사업은 계속되었지만 재정적인 지원이 어려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교우들은 안타까와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면서, 어떤 이는 헌금으로 또 어떤 이는 노력과 봉사로 자기의 최선을 다하였다.

하나님의 섭리한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은혜의 손길을 펴셨다. 그 해 4월이었다. 당시 미 8군 산하 어느 부대 군복과에 근무하는 우리교의 성도 정현경 씨의 주선으로, 미군 후방기지 사령관 메이커 소장으로부터 15,000달러의 헌금을 자재로 약속받았다. 이어 6월에 시멘트 8,300포대가 도착함으로써 공사에 큰 활력을 찾았다. 거기에 힘을 가하여, 마침내 온 교우들이 감격적인 헌당식에 배를 드렸으며, 그 해 12월에는 착공에서 2년여, 총공사비 3,600만원으로 그 준공을 보았다. 그 때의 교세는 장년 약 570명, 유년은 약 330명이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세월을 천정도 없이 내부시설은 어쩔뿐 상태였다고 당시의 어려웠던 상황을 털어놓는 이는 우리교회 초대장로장립한 우성원 장로이다.

우리교회의 예배당은 그 종각이 총마다 아아치형의 특색을 이루고 있으며, 오르내리는 구름다리가 나사도 양인 것은 솔로몬의 성전(왕상 6:8)을 참고했다는 재미있는 에피소우드도 숨어 있다. 거의 3년을 불려온 통일교회를 충현교회로 바꾼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통일교회라는 발음이 이단종파인 통일교와 비슷하다는 점이며, 원래 그 이름은 부산 동대신동 1가에서 「동」자와 「일」자를 딴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하여 1956년 8월부터 지금의 충현교회로 고쳤다. 이것은 우리교회 예배당 위치가 야현동이다가 충무로로 된 것에서 착안, 충무로의 「충」자와 야현동의 「현」자를 따붙인 것인데, 충성된(忠) 고개(峯)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동태로 풀이해서 좋을 것이다.

힘있게 타오르는 불꽃처럼

한쪽에서는 예배당건축공사에 여념이 없이 열의를 다하고 있을 때, 교회는 교회대로 부흥부적 성장해 가고 있었다. 1953년 11월에 시작한 유년주일학교(지금의 유·초등부)는 6명에서 개교 1년만에 130명, 다시 1년 만에 260 여명이란 놀라운 증가로 질적으로도 성장하고 있었다. 설립 당시 학생수가 대를 전성하여 청년성가대가 조직하기까지의 1년간 대예배를 도운 기독교생회(중·고등부)는 김창인 목사의 직접 지도 아래 숫적인 확대와 질적인 발전을 거듭해 갔다.

1956년 초에 대학생·청년들로 조직된 청년면회회는 점차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어 그 해 9월 시내 돈암동에 성암교회를 세움으로써 개척교회에 앞장섰다. 우리교회 설립 3년만의 쾌거(快舉)로서, 교회 안에서 바깥으로 눈을 돌린,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탈바꿈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처럼 우리교회 전도활동은 뜨거운 소명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그 핵심을 이뤄놓았다. 1957년 초에 23명으로 결속된 남전도회는 그보다 훨씬 앞서 창립한 여전도회에 질세라 창립 1개월만에 시내 정능동에 동암교회를 개척, 교역자를 파송하며, 북음전도회 수당매를 인세배로, 연말에는 빈민들을 구제하는 등, 그야말로 눈부신 활약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년부는 1956년부터 대예배 시작 전, 성경강해 중심의 공부를 함으로써 서서히 내실(內實)을 기하고 있었다. 교회 구석마다에서 생명의 역사는 타오르는 불꽃처럼 번져가고 있었다.

미래를 향한 계속적인 전진

쉬임 없이 전진만 하는 충현교회에 대하여, 밖에서는 우리교회를 크게 기대하는 교회 중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안에서 우리들 역시 한국과 동남아와 아니 전 세계를 위해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의무나 책임 같은 소리가 벌써부터 오간다. 이러한 우리의 환상(幻象)은 근래에 더욱 구체화·확실해지고 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복음전파의 원(圓)을 크게 그려 나가며, 속(續)사도행전적 역사가 주님을 꿈쩍이 사랑하는 선한 청지기들에 의해 힘있게 수행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

충현의 현재, 그 분석적 조명

오 태 용

(월간충현 편집·중등부 교사)

교회설립 2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교회는 오늘날 어떠한 좌표 위에 걸으며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고민하며 얼마만큼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외형적으로 보면, 문자 그대로 차고 넘치는 우리교회요, 한국 교회 중에서는 여러 분야에 걸쳐(주일학교, 문서활동 등)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나아가 세계적으로는 인도네시아, 일본, 동해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으며, 또 홍콩과 미주에까지 파송 준비 중인 우리교회이다. 그렇지만 우리교회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 어린, 지극히 작은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자신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자를 더욱 귀히 쓰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제 충현교회에 지워진 보다 큰 사명과 비전을 바라기 위해서는 오늘날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분석 조명하여 우리의 나아갈 좌표를 바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월간충현」은 23주년의 현 시점에서 우리교회의 현실을 일부나마 정리해 보자는 의도하에 11항목의 설문문을 작성, 교역자와 당회원들에게 의견을 듣게 되었다. 이분들을 택한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날의 충현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바로 그들이라 생각한 때문이었다. 또 충현교회의 앞날을 가장 관심하는 분들도 그들이라 보기 때문이었다. 비록 우리는 못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는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긴 안목과 비전을 가지고 성신성의 응답해 주시길 바랐는데 충분치 못해 내용에 충실을 기할 수 있을까 염려된다.

좀 부족한 주일학교 교육

교회에서 신유대출을 청구하였을 때 은행당국은 그 교회의 기성 교인수보다도 주일학교의 실태를 더 본다고 한다. 이렇듯 주일학교의 중요성은 불신세계에서까지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과연 어떠한 수준에 있을까? 흔히들 우리교회의 주일학교 교육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그 중에서도 강점이 12부 주일학교마다에 전담 교역자가 제신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좀 아는 사람이면 자기는 타교회에 나가면서도 자식들만큼은 우리 충현교회로 보내는 이들이 상당수 있다.

그래서 맨먼저 주일학교 문제를 설문하였는데, 우선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시도한 결과 「그런대로 좋다」와 「좀 부족하다」는 견해가 거의 반반이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대단히 다행한 일이다. 조금만 더 개선하고 노력하면 명실상부씩 만족스

러운 주교교육의 가능성이 비치기 때문이다.

시급한 교육관 신축

그렇다면, 현재 우리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① 학생 ② 교사 ③ 교과과정 ④ 교육시설 중 어느 것일까? 거의가 교육시설·교사·교과과정의 순으로 문제를 지적하였다. 사실 이것들은 누구나 들추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실상이다. 그렇다면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첫 번째의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교육관 신축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었다.

우리가 눈뜨고 보는 현실대로 교육의 장(場)이 제대로 확보되지 못함으로써 교육을 탄족스럽게 시킬 수가 없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수적인 강조를 할 수 없으며 교회의 사명 중 하나인 개인전도를 요구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현상에 고착되는 비극을 맛보게 된다. 그러므로 신축이 어려우면, 현 교육관의 증축 내지는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하리라 본다.

교사 재훈련으로 질적 향상을

교사 문제는 응답자들이 하나같이 지적한 것이다. 일반 사회의 지식교육에 있어서도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이 교사인데, 하물며 영적 교육에 있어 교사의 중요성이란 체언을 요하지 않는다. 우선 수의 부족보다는 그 질을 문제삼고 있다. 여기서의 질이란 신앙 정도뿐만은 아니다.

교사 적임자 발굴책을 강구하여 그 사람의 신앙 배경, 소명감, 기독교 교육관 등을 충분히 고려한 다음 채용해야 질적인 향상을 기할 수 있다. 또 교사 재훈련의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과할 것을 주장한다. 그래서 인격적, 지적, 영적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 지도자 양성부를 확대강화하고 또 그 이상의 프로그램까지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부는 교과과정을 문제로 지적하여 출판위원을 구성, 교육위원회와 합동으로 교재 출판을 장기적 계획하에 실시할 것도 주장하였다.

이제부터는 실질적인 평신도 훈련을

교회 교육에 있어 주일학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평신도 교육이다. 평신도는 말하자면 교회의 중산층인데 이들의 올바른 육성은 곧 그 교회의 실력있는 부흥

과 직결된다. 그러면 우리교회에 평신도 교육담당기가 있는가? 즉 그러한 조직은 없으나 청년부·장년부·지도자 양성부·성경학원·성경통신·구역예배 등 그에 준하는 것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들이 전체 교인들에게 보여져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평신도 훈련 기관을 신설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부서를 범교회적으로 선전·제출해서 참여를 권장해야 할 일이다. 또 계절학교, 계절 특강을 각 지부별로 활발히 가질 필요성도 주장하였다. 좀 색다른 견해로는 오후 3시의 「복별집회」를 전교인 성경 공부로 대체해서 3년제 평신도 훈련용 커리큘럼을 마련, 실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리함으로 사회 작게 각종에서 봉사하는 청장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켜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는 성도로 육성하자는 것이다.

「천국 일꾼」의 정의

우리교회는 설립 10주년을 맞으면서부터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큰 표어를 제창하여 왔다. 그래서 뜻 있는 학생들은 이 표어를 들을 때마다 뭔가 가슴 설레임을 느끼곤 하였다. 그러나 「천국 일꾼」이 무엇이며 또 교회는 어떻게 그들을 키우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어 허다한 젊은이들을 방황케 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나마 정리하고 넘어가기 위해 설문하였다. 「천국 일꾼」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① 교역자 일반, ② 교역자를 포함해서 교회에서 신실하게 봉사하는 사람 일반(예컨대 주교교사, 성가대원 등), ③ 직접적인 교회봉사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과 확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나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예컨대 크리스찬 정치가, 예술가, 기업인 등). 이에 거의가 ②와 ③을 선택하였다.

「천국 일꾼」이란 우리 말은 대단히 두리뭉실한 말이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말을 영어로 풀이해 볼 필요할 일이라 여겨진다. 「천국 일꾼」이란 천국에 속한 일꾼(Workers of Heaven)이요,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Workers for Heaven)이다. 이러한 문자적 정의를 취한다면 교회에서 「천국 일꾼을 키우자」할 때 그 목표는 분명해진다. 첫째 천국에 속한 일꾼이라 했으니,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면 다 천국 일꾼이 된다. 둘째 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 했으니, 이는 천국에 속한 일꾼이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 어느 분야에서건 일하고 봉사하는 선한 청지기를 말한다. 그 안에는 목사도 주교교사도 성가대원도 있을 수 있고 회사원·음악가·의사·교육자·정치가 등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포함된다. 그러므로 「천국 일꾼」이란 무슨 특정 인물을 키운다기보다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 구원의 확신과 확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뛰어나게 봉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찬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만인 제사장 원리에도 부합될 것이다.

「천국 일꾼」을 어떻게 키울까?

그러면 우리교회는 이러한 「천국 일꾼」을 명실상부

하게 키우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고 그저 구두선 구실밖에 못하고 있음을 몹시도 아쉬워하고 있다. 그 표어의 구체적인 내용 파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천국 일꾼」의 정의를 위에 쓴 두가지로 본다면 우리의 목표는 구체적이 될 수 있다. 즉 영아부에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의 주일학교를 천국 일꾼 양성기관으로 간주하고 그에 적절한 교육체제를 확립하여 그 과정을 마치게 되면 천국 일꾼으로서의 소명인식과 사명 의식을 확고히 가질 수 있게 한다. 이제 그러한 사람이 교회에서 혹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방면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봉사하며 천국의 확장을 위해 살면 되는 것이다.

또한 좀더 깊이 들어가서 지도자(인물) 양성에도 포함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다. 즉 장학제도를 확충·강화해서 교회교육 지도자·일반 목회자·신학자·선교사 등의 양성을 대폭 추진하고 성경학원을 강화해서는 직업별 선교활동을 유능하게 담당할 수 있는 인물도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선교 전담 연구기관 필요

지금 인도네시아와 동해지역에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고, 일본에 평신도선교사가 파송되어 있으며, 홍콩에도 불원 파송될 예정으로 있다. 그러면 ① 해외선교사의 적절한 선정, ② 선교정보에 의한 선교지의 사전 조사, ③ 파송 후의 지원 및 선교지 관리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물었다. 첫번째 물음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었다. 다만 앞으로는 선교사로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것보다는 아예 선교사 양성 계획을 우리교회가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장기적 안목에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선택된 자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②, ③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슨 해외 선교 전문기관이 있어 충분히 연구·조사·답사 후에 파송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해외선교는 정확한 선교정보 및 자료수집으로 선교지의 사전조사가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적합한 선교사를 선정하며 파송 후에도 지원 및 관리가 일상불편해야 소기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교회가 선교사를 전지(戰地)에 보내기 전에 이상의 모든 절차 및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할 것이었다. 그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까닭에 인도네시아 및 동해지역 선교에 책상 앞에서만 애초도 못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우리교회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시는 해외선교사업에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질적인 해외선교 전담 연구기관설치가 요망된다. 이러한 조치가 없이는 선교에 한 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반 모험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기에는 이제 우리도 경험할 만큼 경험하였으니 말이다. 또 간파할 수 없는 것이 선교사의 지원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외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해서 선교비 송금 등 재정적 지원에 만유루 없어야 할 것이고 선교지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선교사가 복음전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뒷받침은 다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무국 설치가 바람직

우리교회는 숫자적 부흥으로 인해 조직 · 행정 · 행사 등이 점점 지대 · 복잡 다기화해가고 있다. 그래서 전 교인의 인력관리가 능률적이지 못하고 거치는 때가 많아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대내적 문제 말고 대외적인 활동에 있어서도 유능한 인원의 부족으로 교회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일이 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대내외적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의 인력 · 조직을 개편 강화한 사무국의 발전적 설치를 요망하는 소리가 높다. 그렇다고 교회가 커 가니 따라서 조직 · 행정도 비례해서 커는 안되며 여기가 교회인 만큼 필수로 간단하여 영적인 교회를 뒷받침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교회내의 인사행정은 별 무리는 없으나 그렇다고 만족스럽지는 못하다 하였다. 적체적소 인사행정의 중대성에 비추어 기존의 인사위원회를 강화시켜 인력계획 수립, 현황 파악, 인력 관리 등 합리적 운영으로 편중된 인사를 지양하고 소용이 원활히 될 수 있어야 한다 하였다.

진정한 보수(保守)란?

우리교회는 보수적인 교회라 하는데, 과연 진정한 보수는 무엇이며, 그것을 위해 우리교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몇몇 분들은 지금의 우리교회의 보수성에 대해 약간의 회의를 비쳐보였다. 3, 4년 전의 중현교회와 지금의 그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진정한 보수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 견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진정한 보수는 옛날 교리를 그대로 붙들고 늘어지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의 밝은 진리를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참 보수 신앙을 위해서는 방자세보다 연구자세로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전통 보수보다는 복음으로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 주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의 자세를 갖는 것이 진정한 보수라 말한다. 또 어떤이는 말씀 사수와 권위있는 권징 및 교육을 말하며 권징을 바로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불변의 말씀에 가장 가깝게 사는 것이 보수라 보는 이들도 있다.

이를 종합하여 말한다면 진정한 보수는 율법적인 교회에 구속되어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거스틴—칼빈으로 이어지는 성경말씀의 근본 진리를 울타리로 하여 그 범위 안에서는 참된 영적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다. 이를 위해 우리교회는 성경을 열심히 배우고 생활기준을 성경에 두며 시속(時俗)에 영향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80년대의 우리교회의 비전

마지막으로, 대망의 80년대에 있어서 우리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그 예언적인(?) 제시를 부탁해 보았다. 설문이 흥미있는 것이었으므로 의미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나열해 보고자 한다.

① 통일 후가 될 것이므로 통일 후의 국내 전도계획



〈지난 해 나라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다〉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본격적인 세계 선교 움직임을 일어날 것이다.

② 현 상태를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가는 80년대에는 과거 유물적 교회로 될 것이니, 규모와 사용가치에 있어서 적절한 대교회당을 건립할 뿐만 아니라 교육제도의 개선 및 교육방법의 개선 등이 부단히 이루어져야 한다.

③ 민족 복음화의 전초기지, 세계 선교의 파송지, 그리고 각부 주일학교의 넘치는 부흥.

④ 새 시대 대치를 위한 성경적 신앙이 확립된 인물 양성.

⑤ 초대 중현교회로 돌아가 한국에서 제일가는 영적, 복음적 교회.

⑥ 명실공히 진리를 파수하는 보수주의로 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⑦ 교역자가 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학자, 칼빈에 필적할 깊은 신앙인, 장로 · 집사 · 교사가 원숙한 신앙을 구비하여, 그야말로 생명의 잔이 넘치는 교회.

대략 이러한 것들이었다. 무엇보다도 80년대에 통일을 바라겠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고 그에 따라 초대 예루살렘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는 바램이 지배적이었다.

이상 열 한가지 설문을 통해, 우리교회의 오늘을 분석 · 평가하고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 방향제시를 하였다. 설문이 너무 단편적이고 우리교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감이 없잖아 있다. 그러나 위의 여러 설문을 통해 우리교회의 실상이 어느 정도는 진단되고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진짜 문제는 이상에서 토의 · 검토한 것만이라도 이것이 우리교회 전체의 의사이고 바램이라고 볼 때 현재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 · 교역자 등이 절허한 자세로 서로 이마를 맞대고 기도하며 연구하고 개선해 나가 보다 능력있는 중현교회를 건설해 나가야 할 것이다. 주님의 일은 절대로 한 사람의 손으로 이뤄질 수 없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 안다. 때문에 중지(衆智)를 모아 오늘의 난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부단히 새롭게 개혁함으로써 대망의 80년대에 가서는 우리 중현교회에 내리신 큰 사명을 유감없이 완수하여 이 달세에 더욱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 글을 맺는다. (※)

충현의 미래,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

(좌) (담) (회)

- 우리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으며, 내일의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이 모여 교회에 관.....○
-한 이모저모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과연 내일의.....○
-우리교회는 밝기만 한 것인가?○

◇ 일 시 : 1976년 8월 24일

◇ 장 소 : 「월간 충현」 편집실

◇ 사 회 : 이 형 수(월간충현 간사·유년부 교사)

◇ 참석자 : 안 의 경(대학부 교사)

김 환 기(초등부 교사·청년부 회원)

성 주 진(중등부 교사·청년부 회원)

김 구 현(중등부 교사·청년부 회원)

백 희 연(대학부 교사)

윤 보 섭(대학부 면려회 부회장)

사회 :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일의 우리교회의 이끌어 나갈 여러분을 모시고 지금의 우리교회의 이모저모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앞으로의 우리교회 모습 등에 대해 듣고자 합니다. 금년으로서 우리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습니다. 「월간충현」에서는 설립기념일을 맞으며, 몇가지 우리로서는 벅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교회의 확고한 성장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3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첫째는 「과거」전으로서 초창기의 우리교회의 역사를 (일부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까지) 중점적으로 생각하였고, 둘째로는 현재의 문제로 지금 우리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목사님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지금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전망 등을 들어보는 것이고, 셋째로는 앞으로 우리교회를 이끌어 나갈 젊은이들의 지금과 내일의 계획을 들어봄으로써 미래의 우리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어디까지나 이 좌담회를 마련하게 된 계기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모이신 이상 자유스럽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은 젊은이지만 조금은 다른 계층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처럼 함께 자리를 했다는 것도 꽤 오랜만의 일이고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교회 교육의 문제점은?

우선 생각할 것도, 교회를 기능단으로 생각해 볼 때 교육·전도·봉사(구제)의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도 이 교육·전도·봉사의 측면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교육문제를 생각할 때 교육도 학생과 교사와 교재 그리고 교육시설(환경)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면에서 생각할 때 현재 우리교회 교육의 제일 문제점은 어떤 것이

라고 생각됩니까? 김환기씨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김환기 : 교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학생들에게 신앙적으로, 실력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교사여야 하는데 과연 그런 교사들이나 하는 점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유·초등부 어린이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교사 자질에 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형 언니와 같이 친절하게 따른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교사가 자기와 별차이 없는 형과 언니 같이 생각된다는 점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선정시에 유의해야

이와같은 문제는 1차적으로 교사 선정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교회는 지도자 양성부를 두어 교사양성을 하고 있지만 지도자 양성부를 거친 사람들이 다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교사 채용 실의를 위한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차적으로는 주일학교 지도진의 무관심입니다. 어느 교사가 어떻게 채용되었는지, 또 사임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교사의 무관심 채용, 무관심 등도 어린이들에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성경시험은 잘 치지만 생활면에 있어서 기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하는 어린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생활에 적응할 방법이 없다

안의경 : 어떤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하기에 앞서, 제가 배워 온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신앙은 최초의 모방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주위의 사람들의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라납니다. 중등부·고등부·대학부를 거치면서 우리는 신앙해 왔고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회 적응방법을 안 가르

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그 열매 맺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군체대를 앞두고 심각하게 느낀 점입니다. 취직을 해야 하는데, 시험을 치워야 한다, 그런데 주일이다, 그 동안에 배워 오기는 주일에 안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시험에 응시 안한다,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었다는 말입니다. 일단 가르쳐 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수습하는 법을 안 가르쳐 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그러할 때 대처하는 법을 선생님들 통해서 배웠다면 문제는 없을 터인데 이러이러하게 살아라만 배웠지 어떻게 해라는 것은 못배웠단 말입니다. 것처럼 배운 사람이 10년 주엔 또 교사가 되어 또한 것처럼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 주로 교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이야기되는데…… 배우는 입장에 있는 윤보섭씨가 이야기해 주실까요?

성경 자체의 의미전달이 부족하다

윤보섭: 대학부 3년을 지내는 동안 성경에 관한 일반적 지식, 즉 사건·인물·역사성 등은 많이 들었고 보는데, 성경자체가 주는 의미전달, 즉 성경의 능력 있고 생동력 있는 면의 전달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생들이 U.B.F.나 기타 성경연구 단체로 쫓아간다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는 유년부부터 계속 들어 온 기본적인 지식 즉 예수는 우리의 주라는 면만 배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외에도 성경자체의 권위를 깨달아 알 수 있는, 현상적인 것이 아닌 선험적인 면에서 깨우쳐 줘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끝장이보다 더 달라는 말이 실감하게 할 수 있는 가르침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교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제 단적으로 정해진 커리큘럼이 없다는 데 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내용으로 공부해야 한다는 것은 꽤 힘들고 당혹케 하는 일 같습니다.

성주진: 한마디로 진정한 교사의 담보상대라고 보겠습니다.

문서활동 등 정책적인 면에서

체험화된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가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중현교회의 학생들은 훌륭하다고 봅니다. 깊이 있는 성경 주해교육의 부족, 복음을 「단순히」 전달할 수 있는 교사의 기술부족, 또한 교육은 각계각층의 각자에게 맞는 것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이런 교육적 면에서 본 교회 문서활동의 빈약도 문제라고 보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은 자유주의적인 신앙의 역을 보고 은혜(?)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쉽게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교육의 큰 문제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문서활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 커리큘럼이나 비전을 씌어 주지 못하는 점, 장소·시간의 문제 등 교육의 정책적인 문제가 뭐라든지 않는다면 어렵다고 봅니다.

철저한 자기소모를 해야

백희연: 학생은 훌륭하다고 했는데 학생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알의 밀알이 생명으로서의 가치를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배를 다 소모해야 하는 것과 같이 각자도 내적인 자기 소모를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려는 진심한 고뇌가 있어야 되는데, 혹간에는 주위환경을 탓하고 타인의 신앙상태를 의식하며 오히려 것처럼 자기 소모를 하며 애쓰는 사람들에게 큰 거친들 노릇을 하고 있다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본질인 힘이 자기 소모에 다 쓰인다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런 과정을 거쳐야 신앙의 그 힘으로, 우리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찬 중에, 교회 안에 있는 것도 같습니다.

김구현: 일반적인 사회교육은 전문교육을 받은 교사가 교재를 통해 교육을 해나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중에 성숙되어 나갑니다. 그러나 교회교육은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먼저 알은 사람이 가르치게 됩니다. 또한 교회교육은 지식 전달의 교육만이 아니라 신앙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타인에 의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도 노력하며 애쓰는 가운데 도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보아 집니다.

천국 일꾼이란 무엇인가?

사회: 교육 전반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모두가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여러 사람에게 의해 지적된 교사의 문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이 점을 깊이 생각하여 「지도자양성부」 「성경학원」 등을 설치하여 교사의 자질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이와같은 것은 교회설립 10주년을 맞으며 우리교회의 표어로 내세운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뚜렷한 목표설정에 기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천국 일꾼을 키울 것을 약속한 지가 10년이 지났지만 「천국 일꾼」에 대한 뚜렷한 이미지가 아직도 부각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의경: 우선 천국 일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천국 일꾼을 키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운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이야기하는데, 가령 목사님이, 성경이 계시하는 대로 살아나가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세상을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일꾼이라고 생각할 때 세상을 사는 사람은 천국 일꾼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목회자나 선교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둔 사람

백희연: 그렇다면 전 실망했네요. 전 지금까지 천국 일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웃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일꾼은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만남을 체험

한 사람으로서 살아나가는 삶의 여정에서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사람. 그래서 처한 바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안의경 : 그러나 그런 자세는 일반 성도가 누구나 가져야 하는 자세가 아닐까요?

구체적인 헌신목표를 가진 사람

성주진 : 저는 백회연석의 말에 동의합니다만 조금 구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광의(廣意)로 생각할 때엔 그럴 수가 있는데, 조금 좁혀진 개념으로 볼 때 마태복음 28장의 말씀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신앙을 성장케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가 처한 곳에서 구체적인 헌신목표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막연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생각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구체적인 헌신목표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고 교회가 원하는 진정한 천국 일꾼도 이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김구현 : 광범위하게 아니고 좁은 의미로 사용한 듯 합니다. 그 당시에 개척교회가 많이 생기고, 또한 중원교회가 세계선교의 꿈을 키우고 할 때인지라 이를 위한 복회자 · 선교사의 양성을 위한 데서 나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환기 : 초창기에는 김구현씨 이야기가 맞는 것 같은데 현재나 앞으로의 상황을 보아 평신도를 통한 직장의 선교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천국 일꾼을 키우는 방법도 좀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각분야에 걸친 장학제도, 각자의 분야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게 하는 일 등으로 적극적인 입장에서 천국 일꾼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 이처럼 천국 일꾼을 키우고, 교육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봅니다. 군대에 들어 국외에서도 한국교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는 만교회운동을 펴고 있고 우리교회도 대학부에서는 「동남아의 안도옥」이 될 것을 다짐하여 전도와 해외선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교회를 전도 · 선교와 연결시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제시가 없다

김환기 : 구체적으로 선교 · 전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주어졌냐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교회운동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해외선교를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할 일을 쫓아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안일과 담보상태가 계속될 것입니다.

성주진 : 선교의 대상이 내 가족 · 직장 · 세계로 다양한 데 참여하는 사람이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게 교회에서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이 알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갈망질망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공략할 수 있는 타깃

(목표)를 단계적으로 세워줘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 : 대학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동남아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윤보섭 : 대학부자체에서는 이를 위해 D.T.C.(제자훈련코코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기, 30여명 정도가 이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동남아선교의 발판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회원들은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대학사회의 특성에 따르는 자신과 신앙과의 갈등, 자신의 문제들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대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기대와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에게 너무 기대한다

그렇지만 이런 개개인의 문제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받을 때 우리는 동남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까지도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회 :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았는데 시간이 다 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꼭 하고 싶은 말 또는 꼭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김구현 : 평신도교육을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도 지도자양성부나 성경학원 등이 있지만 주일 오후에 전 교인이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된다면 좋겠습니다.

농어촌 · 도시교회 급료를 통합하자

안의경 : 우리교회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교회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농어촌교회와 도시교회의 격차를 없애 평준화하는 방안으로 급료를 통합시키자는 것입니다. 도시와 농촌을 평등하게 하고 그것이 안되면 우선적으로 교육제로 같은 것은 서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윤보섭 : 구체적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너무나 자체 내의 소비가 많고 예산집행의 많은 부분이 소비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

성주진 : 보수, 보수 하는데... 보수의 의미와 한계를 명확히 했으면 싶습니다. 특강시 강사선정문제 등에서 너무나 우리 교단만 고수하는 태도는 지양하고 우리가 피차 교류할 수 있는 교단의 한계를 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환기 : 군대에서 제대 후, 너무나도 변한 우리교회를 보고 놀랐습니다. 마치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인상을 주는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과연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인지 등을 생각해 보고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교회는 중원교회대로 중원교회의 색깔과 모양을 가진, 중원교회의 특징을 살려 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 : 너무나도 오랜 시간 말씀들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한 사람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집전과 우리 독자들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ell with my soul)

(세 485; 개 423; 합 478)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물처럼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지음받은 성도들은 자신의 생명을 예수를 위해 기꺼이 바치겠노라고 고백한다. 진정한 성도는 인간적인 실패나 사고, 재난에 봉착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니 나의 영혼은 편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1873년 그 당시 가장 호화선으로 알려져 있는 불탄 여객선 「빌레 데 하버」호가 뉴욕항을 출발하여 유럽으로 가고 있었다. 그 여객선에는 시카고의 사업가 요 번호사요 대학의 법리학 교수였던 스페퍼드(Horatio G. Spafford)씨의 부인이 네 아이를 데리고 유럽 방문 길에 올라 있었다.

스페퍼드씨도 사실은 같이 가기로 예정하였으나 얼마 전 시카고의 대화재로 그의 소유를 다 잃고 그 뒷처리와 사업상의 문제로 인하여 같이 출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이 여행을 연기하려고 생각했었으나 신자들과 동행하게 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부인과 애들을 먼저 출발시키고 나중에 불탄에서 만나기로 하였던 것이다.

모두들 기쁨 중에 배는 수일을 고요히 항해하고 있었는데 동년 11월 22일 새벽에 그만 영국의 철선 톱키안호와 정면 충돌하여 불과 두 시간도 못되어 226명의 목숨을 잃은 채 대서양 바다 밑으로 침몰하고 말았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 스페퍼드 부인은 네 아이를 이끌고 갑판에 올라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랑하는 네 아이의 목숨을 전지 주소서 그러나 그들이 죽는 것이 당신의 뜻이옵거든 우리는 기꺼이 그들을 택하겠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끝난 후 배는 침수되기 시작했는데, 부인은 익사 직전 생명선에 구조되었다. 9일 후 웨일즈에 도착하여 남편에게 “혼자만 구명되었음”이라고 전문을 보냈다.

시카고 대화재 때 그의 소유재산은 모두 불태워 버리는 시험이 재 가지기도 전에 더 큰 시험이 닥쳐왔으나, 스페퍼드씨는 “나에게 어떤 희생이 올 때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매우 기쁘다”라고 그를 위로하려는 교우들에게 답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부인을 데리러 영국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스페퍼드씨는 자기의 네 아이가 잠들어 있는 바다 위를 통과하는 날, 한잠도 이루지 못한 채 여러가지 갈등에 시달리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저버리시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그의 확실한 신앙은 터질 듯한 악몽을 정복하였고 그날 밤 그가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며 울부짖을 때 하나님께서 한 시로 응답해 주셨으니 그 시가 여기 소개하는 「내 평생에 가는 길」(It is well with my soul)이라는 찬송이다.

◇한달에 책 한권씩 읽읍시다◇

.....신문·잡지 얼마를 읽는 것으로 독서한다.....
.....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생활에 여.....
.....념이 없는 우리 평신도들로서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좀체 책을 대하지 못한다는.....
.....것이 숨김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 보탬이 되는 귀한 책들을 골라.....
.....적어도 한달에 책 한권씩은 꼭 읽는 습관.....
.....을 키워 가자는 의도에서 우리는 전 교인.....
.....들을 향해 위와 같은 캠페인을 벌입니다.....

—「월간 중현」편집실

☆ 추천하고 싶은책 ☆

존 머리 지음 김 남식 번역



성 암 사 발행

국판, 300면, 값, 1,500원

신앙생활을 보다 성공적으로 전개시키기 위해서는 성경의 원리를 실제화시키는, 즉 성경적 신앙을 성도들의 생활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성경이 교훈하는 진리를 구체화시키고 우리 생활에 바르게 적용시킨다면 우리의 삶은 그만큼 능률적 이요 성공적일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사는 우리가 현실생활에서 보다 저해롭게 바른 삶을 유지하려면 기독교윤리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소개하는 책 「기독교윤리」(Principles of Conduct)는 「성경윤리」라고 칭해도 좋을 만큼 성경적 윤리관 확립에 최선을 다한 책으로 전해진다. 저자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란 원리 속에서 전개시킨다. 성도들이 당면하는 여러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성경을 기초로 하여 해석해 줌으로써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나침반 역할을 하게 한다.

저자 존 머리(John Murray) 교수는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의 조직신학 교수이다. 조직신학에 연구가 깊을 뿐더러, 기독교윤리의 분야에도 많은 연구를 남기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 책 외에도 「야담의 원리의 전개」·「성경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칼빈의 사상」 등 술한 저서를 남겼으며, 칼빈주의 신앙을 생활화하는 데에 큰 공헌을 하였다.

이 책은 각 분야에 중시하는 크리스찬들에게 성경공적인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나아가서 사회생활에서의 승리를 약속한다. 총회신학대학에서 기독교윤리를 가르치고 있는 박아론 교수도 이 책을 가리켜 「개혁주의 기독교윤리의 『노론지위』라고까지 말한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독(一讀)을 권한다.

* 조선근 집사(월간중현 편집위원)

신앙의 개방성 · 이적의 부인 경향

—신복음주의 신학이란 무엇인가(II)—

김 차 생 집사

(고동부 교사)

초창기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에 자랑할 만한 것은 정통신학, 보수주의 신앙, 즉 성경의 축자영감설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자유주의신학을 경계해야 할 것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심이 철두철미하였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는 자유주의, 신정통주의, 상황윤리, 사신신학, 소망의 신학, 혁명의 신학, 신복음주의 신학 등 이단적 신학이 홍수처럼 밀려와 한국 보수교회는 이러한 이단사상을 방어하는 데 일차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이용도의 신비주의, 한국신학대학을 배경으로 한 기독교장로회가 분립될 때와 WCC 세계교회협의회가 가입문제로 통합축이 분열하였을 때의 예를 들 수 있다.

현재 한국 보수교회는 자유주의 신앙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반대하여 왔으나 오순절주의적 신비주의 신앙에 대하여는 반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의 생각에는 한국 보수교회가 지금부터라도 정신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오순절주의라는 타락한 감정주의가 한국교회에 판을 칠 것이다. 한 마디로, 이들의 신앙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진행하지 않고 육적 감정주의에서부터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주의 신앙과 같이 배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근본주의 신앙을 바로 지켜야 한다. 근본주의는 기독교의 역사적 전통적 정통신앙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과 개혁신학자들로부터 물려받은 초자연주의 기독교 정통 보수주의이다. 이것이 곧 기독교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 근본주의 혹은 보수주의를 자처하면서도 근본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꺼려하는 이들이 있다.

현재 미국의 기독교회는 자유주의와 오순절주의가 99%, 근본주의는 1%에 불과하다. 물론 자유주의 안에는 개인적으로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이들도 있으며, 그 외에도 중간노선을 걷는 중립파에 속한 자들도 많이 있다. 다만 체면과 환경 때문에 그들과 같이 연합하고 있는 것이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취하는 태도를 여러가지로 종합해 볼 때, 신복음주의는 신앙의 개방성, 이적의 부인 경향, 친국과 지옥의 희미한 이해와 과학에 맞도록 성경을 해석하는 과오들을 방치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이런 분별요소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다.

다시말하면, 신복음주의자들은 타락한 단체나 교회에 머물러 있기를 주장하고, 자유주의자들과 우호관계를 증진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세계적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를 들 수 있다. 그는 초창기에는 보수주의자들의 협력과 그들이 주최하는 집회를 하였으나 후에는 근본주의를 배격하고 오히려 자유주의와 로마가톨릭 그리고 공산주의 등 어마어마한 이교사상에 대한 관용과 친선을 위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부인하는 자유주의자들의 협력으로 부흥집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빌리 그레함은 1967년 11월에 북카롤라이나주 벨몬트시에 있는 로마가톨릭대학으로부터 명예인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연설하기를 “나는 이 학위보다 더 훌륭한 학위를 알지 못합니다. 이 학교를 창설한 복음은 곧 내가 오늘 전하는 복음과 똑 같습니다”라고까지 하였다. 그리고 그는 1973년 5월 서울에서 열린 부흥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일본 동경에서 신문기자들과 회견하는 중에 “모택동의 여덟가지 교훈은 기본적으로 십계명과 같은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십계명을 우리 학교에서 읽지 못하게 하면 나는 모택동의 교훈들을 읽는 것을 결정하겠다”라고 했다(필자는 기자회견 기사 원본의 복사한 것을 갖고 있음).

1973년 빌리 그레함의 한국 집회와 아울러 나타난 결과는 아시아연합신학대학원과 선교회의 형성이었다. 1974년 5월 1일 신복음주의자 칼 헨리 박사가 예비강의를 했다. 교수 중에는 대부분 자유주의 계통의 교파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1966년 10월 서독 베를린에서 세계전도대회가 열렸다. 1,300여명이 모였는데 빌리 그레함이 명예회장, 칼 헨리가 회장으로서 주최하고 진행되었다.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WCC 및 자유주의 세력을 포함하고 근본주의 자들과 공산주의 반대자들은 초청에서 제외하였다. 공산국가에서 육교를 치룬 리차드 범브랜드 목사는 미국 상원 국회안보위원회에서 자기의 몸에 받은 공산당원의 무서운 압박의 상처를 폭로함으로써 공산주의자들과의 공존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경고를 한 이유로 이 전도대회에 초청이 취소당하였다(한국 목사들도 10여명 참석하였는데 보수주의를 주장하는 목사들도 몇명 된다).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신복음주의 전도대회 역시 명예회장에 빌리 그레함이었는데 이 대회를 박형룡 박사는 평가하기를 “WCC에 대한 아첨으로 일관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데 무슨 손해가 있는가 라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고후 6:14-17)라고 하였다.

한국교회가 다 같이 명실할 것은 이런 연합적 운동과 신비주의에 관하여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는 혼란에 빠지고 영적 분별력을 파괴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바로 믿는 교회와 교역자들이 이제 일어나서 무엇인가 행하지 않으면 증대한 오류가 들어와 보수신앙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갈 것이다. (※)

□ 캠페인 / 뜨겁게 봉사하자 □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뜨겁게 봉사하자

■ 힘써 일하라!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
리니 그 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
라.

(요 6:4)

1970년 9월 21일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 형 수

결실하는 9월에 맞는 당신의 스물세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3년여를 이끌어 온 동탄의 불안한 포성이 멎은 1953년, 안도와 원망, 희망들이 착잡히 교차하는 가운데 우린 먼저 영원 전부터 배태(胚胎)된 당신의 탄생을 준비했습니다. 구차스러운 천막에서였지만 당신의 탄생을 준비하고 지켜보는 우리의 가슴은 따뜻한 사랑과 조용한 갈망으로 파문치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였지만 우린 감사와 기쁨 속에서 당신을 높이고, 당신을 증거하고, 당신을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우린 흠어져 하나가 될 때나, 모여서나 당신을 위했고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묶어진 한마음을 가지고 당신의 성장·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썼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생애에 가장 빛나고 보람있었던 때가 아니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열심 가운데 우린 당신이 「민족복음화의 센터」가 될 것을 확신하며 다짐했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당신은 계속 성장·발전했습니다.

10주년을 맞으며 「천국 일꾼을 키울 것」을 약속하면서부터 당신은 점차로 한국교회를 이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내적인 성장에서 이제 밖으로 성장하는 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971년 9월, 우린 당신의 조그마한 분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창기부터 품어 온 「민족복음화의 센터」의 꿈은 해외로 떨어 「인도네시아」에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어져 일본으로, 홍콩 지역으로, 홍콩으로, 전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12개의 주일학교, 2,340세대의 84개 구역, 6,000여명의 식구를 가진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기쁨은 23년간의 노력과 수고가 하나하나 결실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사람, 한사람이 무한한 잠재력을 소유한 십자가의 정병으로 열매맺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복음화의 센터」에서 「동남아의 안디옥」으로 거기서 「세계속의 예루살렘」으로까지 우리의 시야는 넓어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의 그 열심이 소망속에서 불붙기 시작하고 생동하는 기운은 6천을 하나로 묶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의 스물세번째 생일을 맞으며 당신이 「세계교회의 견인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진심으로 당신의 스물세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보람 안겨준 전도여행

박 명 련

(제일성가대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뜻을 같이하는 몇사람이 머털리 제주도 서귀포로 자비(自費) 전도여행을 갔다 온 일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 중 한 대원이 보내온 이 글은 아름다운 한 쪽의 그림을 보게 하는 그런 보고문이다. (편집자)

지난 봄인 4월부터 멀리 서귀포 서남교회 봉사대로 떠나려는 한 모임이 있었다. 제일성가대원인 이들은 김영환·임은숙·신계은·정영희·전은실·박복실·박명련 등 7명이었다. 서남교회는 본 대원 전은실 양의 부친 전희문 장로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이다.

기도하며 각자 조금씩 저축을

기간은 8월 17일부터 19일까지. 그러나 오고 가는 땀까지 합치면 꼬박 한 주일이 걸리므로 직장에 매이지 않은 대원들로 구성하고 보니, 제일 곤란한 것이 소요예산 확보라는 경제적인 것이 문제였다. 같이 기도하며 의논한 끝에 조금씩 저축하기로 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어느 대원은 4월로 끝나는 아르바이트의 봉급을 몽땅 털어놓기도 하였다.

바닷바람에 그을린 검은 얼굴들과

기다린 8월 그 날은 왔다. 예정대로 제주도에 도착, 서남교회에 여정을 쫓아 우리는 누구나 보람찬 봉사를 위한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성경학교 첫날 모인 어린이는 75명, 바닷바람에 그을린 검은 얼굴들이 반짝이는 눈에 호기심과 기대를 잔뜩 담고 친구끼리 혹은 동생들 업고 교회안을 기웃거리면서 새벽부터 모여든다. 이웃교회 어린이들마저 모여 더 흥청대는 느낌이었다.

복음찬송가와 함께 걸들인 손유희는 기대 이상으로 잘 따라왔다. 어린이들의 성경지식은 놀라웠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을 모르는 어린이들이 많아서, 성경공부시간에는 예수님 소개를 집중적으로 하였다.

흥미에 끌리면서도 거부하려는...

오전시간이 끝나고 노방전도를 나갔다. 서귀포 부두에서 「글 없는 책」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어린이들을 모았다. 신기한 그림책과 이야기에 끌려 오면서도 걸으려는 거부하는 태도가 강했다. 미신이 성한 어른이라 한 해에 한번씩은 이사한다고 하며 불교신자들도 적지 않아, 이런 배경에서 자라선지 우리쪽에서 접근하려 해도 뿔뿔이 떨어져 멀찌감치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의 표정을 살피고 따라나서는 어린이가 있는가 하면, 따라오려다 아버지의 곁에 걸걸해서 물러가는 어린이도 있었다.

손유희를 하며 전도지를 나누어주었더니 전도지에 큰 관심을 보이는게 도사 어린이들과 다른 정경 같았다. 바닷가에서 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은 농촌어린이들보다 거칠고 짙은 외로움이 풍기는 것 같았다. 어머니가 바다로 나가는 집이 많아서일까, 제일 신나고 재미있는 일을 물었더니 다들 수영이란다. 섬 어린이들에게도

교육과 다양한 오락시설이 절실하다고 느꼈다.

놀라운 것은, 그곳에는 비정상적이라고 할 신체부진 아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눈이 이상한 아이, 머리가 보통 어린이의 거의 두 배나 되는, 그리고 더 많은 소아마비 어린이들...

노방전도로 인해 저녁예배시간에는 118명의 어린이들이 좁은 예배당을 꽉 메웠다. 설교시간에 눈을 반짝이며 귀기울이는 귀여운 어린이들...

새까만 손들과 악수하며 안녕

둘째 날 오후에는 해변가에 있는 보육원의 요청으로 고아들과도 재미있게 지내는 시간을 가졌다. 평소에 훈련된 어린이들이라 이야기를 조용히 들을 줄 알고 찬송을 몇 곡 가르쳤더니 빨리 배우고 또한 정확하였다. 70여명의 원아들을 두고 떠나올 때는 무언가 못 다 주고 오는 듯한 아쉬움으로 가득찼다.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일과가 끝나자 메어달리는 꼬마들, 전지하겠다고 주소를 알려달라고 조른다. "선생님, 안녕!" 하며 눈물이 글썽해 쳐다보는 어린이들의 손을 잡아주고 머리를 일일이 쓰다듬어주며 겨우 헤어보내고 손바닥을 보았더니, 어느새 새까맣게 되어 있어서 우리는 마주 쳐다보며 웃었다.

텅빈 예배실에 둘러앉아 감사의 기도

있는 힘·정성을 다해 봉사한 3일간의 일들을 생각하며 상기된 얼굴을 한 우리 대원들은 텅빈 교회당에, 그곳 교사들과 함께 둘러서서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며 평가회와 함께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서로의 손들을 잡으며 주님께 충성을 마음다짐하면서.

귀로에 호위군인에게 전도해서 성공

금요일 저녁 배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는, 여대원들만 보내는 것이 영 마음이 안 놓였던지 전 장로님과 김영환 씨가 같은 배에 탈 갈때기 두 개 붙인 군인을 소개해 주시며 보호를 받으라고 알뜰한 배려를 보여주셨다. 군인이 우리를 에스코오트하는건지 우리가 군인을 에스코오트하는건지 알송달송한 기분이었지만.

우리 일행은 갑판으로 올라갔다. 별빛을 바라보며 신나게 찬송 부르는 것을 물끄러미 보던 그 군인은 "애수 믿는게 그렇게 즐거우세요?" 부러운 듯이 한 마디. 4명의 우리 여대원들은 토너먼트로 전도를 시작, 마침내 결선하는 과정을 밟고, 주일날은 본교회에서 반갑게 만나 청년부 인도해 주었다. 열심히 일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토요일 무사히 돌아와 3부예배 성가대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뿐이다. (*)

종말론에 대한 이해

이 정 응

(고등부교사 · 종신대연구원 2년)

우리는 옛날 사도들의 사상에서 종말관사상을 성경에서 발견하게 된다. 복음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생활만을 주로 강조하는 양식사(Formgeschichte)학파에서는 종말론사상은 사도들과 교회의 착각이라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대로 주님의 재림은 매우 가까왔다고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을 하루와 같이 보신다. 우리는 성경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다고 한 말씀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계산대로 단시일 안에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교회 역사를 보면 종말론을 지나치게 인간의 표준대로 생각하다가 실수한 사건을 종종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측량하시는 척도는 우리의 생각보다 깊고 오묘하며 원대하시다. 우리는 그의 척도에 맞추어 살아야 한다. 그것은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 말과 같다. 여호와 하나님의 원대하신 생각에 밀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며 탈선할 수밖에 없다.

신지자 이사야는 말하기를 “여호와와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하였다(사55:8,9). 어떤 성도들은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 실상은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택한 자녀들이 모두 멸망하지 않고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신약시대는 벌써 일종의 말세임을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 나리라”고 하셨다(요 5:25). 신약의 교훈은 신약시대를 말세로 보았고 주님의 재림은 이 시대에 성취될 일이니만큼 아주 긴박한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칼빈주의 신학자 리델보스(Ridderbos)는 종말관에 있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서로 격리시키지 않고 그 둘을 일체로 본다. 곧 주님의 초림 사역은 바로 장차 나타날 그의 재림의 선구자인 것만큼 그 둘은 일체에 붙어 생각할 것이다. 리델보스는 이 점에 있어서 신약계시를 바로 보았다.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으므로 그만큼 세상 끝날의 긴박성을 느껴야 한다. 세상 종말의 긴박성을 느끼는 진리에 합당한 생각이다. 옛날 사도들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다니엘도 예언하기를 마지막 날에는 인구가 증가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지식이 발달하리라 한 그대로 오늘날 가족계획, 고속도로, 지난 10여년간의 지식발달은 이루 말할 수 없으니만큼 발달되었다. 누가 이 사실을 부정할 것인가.

우리는 이 모든 사태를 볼 때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왔다는 것을 깨달으며 맞이할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할

다.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사태를 바로 보고 시대성격을 파악하며 긴박성을 느끼면서 사는 자가 복있는 자다. 긴박성을 느끼는 자는,

첫째로, 책임 완수에 전력하게 된다. 그는 칭찬 받기 위해 자기의 미성품(未成品)된 것을 안타깝게 여기며 반성과 회개로 자기 책임에 전력을 기울인다. 그 책임은 천가지 만가지이다. 학생은 공부에 열중하고, 상인은 상업에 양심껏 근면하며, 농부는 열심히 농사에 부지런하고, 직장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실·봉사하며, 교역자는 말씀과 양을 돌보는 일에 탐홀리며 복음의 씨앗을 심고, 양된 성도는 주님의 종들의 교훈에 순종·실천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에 충성하게 된다.

따라서 그에게는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책임의식에 강한 그에게는 시간처럼 빠른 것이 없다. 그래서 그는 가슴찬 프로그램으로 꽉 차 있다. 그는 책임을 기쁘게 생각하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한다.

둘째는 기도하며 사랑한다. 하나님께 자신이 연약하여 범한바 허물과 실수를 고백하여 성결하기를 바라며 이 사태를 승리하기 위해 기도생활과 하나님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생활을 한다.

세째는 죄를 벗어 버리고 단정히 행한다. 방탕과 술취하지 않으며 음란과 호색하지 않고 쟁투와 시기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를 뜻하고 경유를 위해 살지 않고 신령한 일에 힘쓴다.

네째는 참는다. 농부가 비를 기다림같이 처녀가 신랑을 기다림같이 소망으로 모든 것에 인내한다. 기독교는 비관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낙관적인 세계관이다.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속에 구속의 질서를 기대하며 악한 영에 의해 세상이 악하지마는 영원한 선의 왕국, 곧 눈물과 근심과 유혹과 고생이 없는 새로운 낙원의 세계가 우리 앞에 있을 비전(vision) 속에서 인내한다. 원래 인내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는 법이다. 학생이 눈비를 가리지 않고 학교에 다니며 열심히 공부물을 하는 것은 장래에 참된 인격자가 된다는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다. 농부가 새벽부터 일터에 나가 땅을 돌리며 김을 매고 기쁨을 주는 것은 가을에 결실을 바라보고 인내로써 일한다.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은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의 나라가 건설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다. 옥중에서 배를 맞으며 생명을 초개같이 버린 성도들은 순교의 상급을 바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낙원 세계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에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주님의 재림의 긴박성을 느끼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와 인내로써 기다린다. (※)

구 역 공 과

◇ 10월 공과 ◇

제6장 주기도의 다섯번째 간구

성경 : 마 6 : 12

찬송 : 새 282(합 250)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또는 빛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같이 우리의 빛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 성경 밑의 주를 참고할 것.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몸을 위하여서는 하나의 간구(일용할 양식)를 한데 반하여 영혼을 위하여서는 둘의 간구(제 5, 제 6의 간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보다 중요한 관습사가 무엇이어서 할 것을 보여준다.

1. 죄란 빛(debt)이다(마 18 : 24)

그러면 왜 죄를 빛이라고 부르는가?

① 빛이란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에도 그것을 드리지 않고 있다. 그것이 우리가 갚아야 할 부채(빚)이다.

② 빛은 갚지 않을 때 감옥에 가듯 우리는 갚지 못한 빛(즉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죄가 최대의 빛이 되는가?

첫째로 이것을 갚을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기 때문이며, 둘째로 우리의 빛(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며, 세째로 한 가지만 아니라 머리털보다 많은 빛(시 40 : 12)을 지고 있고, 네째로 죄가 채무자(죄인)를 죄사슬로 꽂고 묶어 종으로 일생을 부려먹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빛(죄)은 반드시 갚아야 한다.

2. 죄란 빛을 갚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빛)를 자백하면 저(하나님)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빛)를 사하시며”(요일 1 : 9). “내가 이끄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빛)를 아뢰고 내 죄악(빛진 내용)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빛진 내용)을 사하셨나이다(갚아주셨나이다)”(시 32 : 5).

① 그러나 여기엔 한가지의 조건이 따른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타인)에게 죄 지은 자(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는 마 18 : 21-35에 기록된 비유가 이것을 증명해 준다. 여기서도 주님은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즉 용서치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 용서”하라고 했다(골 3 : 13).

그러면 죄의 용서란 무엇인가?

그것은 죄를 “제거하는 것”(요 7 : 21)이요 「가리우는

것」(시 85 : 2)이요 「도말하는 것」(사 43 : 25)이요 구름·안개의 사라짐같이 「흩어지게 하는 것」(사 44 : 22)이요 깊은 바다에 「던지듯」(미 7 : 19) 내어버리는 것을 말한다.

제7장 주기도의 여섯번째 간구

성경 : 마 6 : 13

찬송 : 새 359(합 359)

“우리를 시험(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유혹)에 들도록 하기도 한다는 말인가? 한 마디로 하나님은 아무도 범죄하도록 시험하지 않는다. 약 1 : 13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창 22 : 1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test)했다고 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금을 용광로에서 달구듯 아브라함의 신앙을 시험(test)해 보신 것뿐이며 결코 고통을 주어 범죄케 하려 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시험(유혹)」은 어디서 오는가?

첫째로 「자기 안에서 온다」. 즉 마음이 모든 악의 온상지이다. 그래서 약 1 : 14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고 했다.

두번째로 「시험(유혹)은 사탄에게서 온다」. 마 4 : 3에 사탄을 “시험하는 자”(즉 유혹자)라고 했다. 이 사탄(유혹자)이 공중에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므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자주 기도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시험이 자신의 욕심에서 오는 것인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인지 구별하는 일이다. 이것은 버나드(Bernard)의 말대로 대단히 어려우나 우리는 다음 세가지로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로 자신에게서 오는 시험은 「점차적으로」 오지만 사탄의 시험은 「갑자기」(엡 6 : 16의 “화전”이란 뜻밖에 갑자기 오는 것을 뜻함) 온다.

두번째로 자신에게서 오는 시험은 그렇게 「무섭지 않다」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은 하나님을 모독한다든지 자살하는 것처럼 무섭다(그래서 바울은 화전 즉 불화살에 비유했다, 엡 6 : 16).

세째로 악한 생각이 마음에 떠오를 때 그리고 그것이 「싫고 주저될 때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게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주입시킨 것」이다.

그러면 사탄이 성도를 유혹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사탄은 위장술이 뛰어나 성도로 하여금 이 생각이 자기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난 것으로 믿게 하려고 한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으나 사실은 요셉이 넣었던(창 44 : 12),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생각도 저절로 생긴게 아니라 사탄이 집어넣은 것이다.

더우기 사탄은 하나님의 은혜는 불충분하다고 유혹한다. 이 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요일 1 : 7)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 18: 1)



우리교회 설립 23 주년을 맞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 회	제 직 회	전 도 위 원 회
해외복음선교회	남 전 도 회	산 업 전 도 회
성 경 학 원	교 육 위 원 회	재 정 위 원 회
성 가 부	구 역 권 찰 회	건 축 위 원 회
장 학 위 원 회	여 전 도 회	권 사 회
동산관리위원회	재단법인충현동산	월 간 충 현
새 신 자 부	영 아 부	유 치 부
유 년 부	초 등 부	중 등 부
고 등 부	대 학 부	산업전도교육부
청 년 부	장 년 부	노 년 부
제 일 성 가 대	여 성 성 가 대	대 학부성가대

충현교회

당회장

김 창 인 목사

사진·글 / 이 형 수
〈월간충현 간사〉



어리석도록 정직한 대답

1948년도 저물어 가는 겨울, 원산에서였다.

“어디 가는 사람이요?”

“월남하는 사람이요.”

“월남요? …… 나의 한 마디에 당신의 목숨은 달려 있소. 그래도 좋소?”

“죽어도 좋소. 그렇지만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지 당신에게 달려 있는 것은 아니요. 마음대로 하시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하나 둘 월남하는 동포들이 늘어나고 있었다. 남하를 저지하는 감시가 한층 두터운 벽을 뚫고 있을 때, 이처럼 어리석도록 정직한 대답이 어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이 기막히게 솔직한 대답의 신앙과 성실은 오늘 이곳에 이처럼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주춧돌이 된 것이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섭리

김 창인 목사는 올해 예순, 평북의주에서 태어났다.

“목사가 될 생각은 전혀 없었어. 어머님은 어릴 적부터 늘 사람다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늘 어머님 말씀을 생각했지……”

그렇지만 저작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야말로 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상상 밖의 일을 이루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학 3년, 그의 나이 19세 되는 해에 큰 병을 앓게 되었다. 치료차 약수터를 다니게 되었고, 우연히 아주 우연히 약수터에서 명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던 중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곳 저곳에서 예배인도 요구와 나아가 며칠씩 집회 인도의 청을 받게 되었다. 약수터에 따라다니며 성행하는 귀신당들의 철퇴를 위하여 약수터에 수양관을 짓기로 결심한 후, 그 헌금모금을 위해 이리저리로 다니다 보니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는 그야말로, 그야말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리어 「목사」가 된 것이다.

청년 때 얻은 병은 평생을 두고 그를 괴롭히고 있다. 지나친 경우엔 설교를 못하실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를 위해 하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은 그의 건강인 것이다. 지금도 강대 밑에는 항상 타구(睡具)를 준비해 놓고 있다.



↑남쪽 창을 열면 현관의 하류가 눈 앞에 흐른다.

↓바쁜 가운데서도 틈틈이 여러 종류의 책을 살펴본다.





깊은 감화력 있는 그의 설교

평소엔 자상하고 인자하지만 일단 강단에 서면 위엄있는 모습으로 변한다. 성가대석에서 3층 구석까지 일일이 일별하며, 잘 다듬어진 알맞은 목소리로 때로는 나직 나직하게, 때로는 벅락치듯, 때로는 물 흐르듯 유창하게, 또는 두 손을 번쩍 들고 찬송을 부르며 깊은 감화력 속에서 하는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과연 「하나님의 사자(使者)」란 어떤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이처럼 어느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목회로 오늘날까지 별 잡음 없이 우리 교회를 성장·발전시켜 온 힘은 「나에게는 무식과 고집과 하나님의 백(background)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하나님께 근거를 둔 확실한 그의 주장 때문인지도 모른다.

쉴 틈 없이 그는 바쁘다

새벽에 눈을 뜨면, 어느 누구와 이야기하고 무슨 일을 하기 전,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는 무척 바쁘다. 금년에

하나님과 약속한 성경읽기는 구약 6번, 신약 12번, 또한 한 주일에 설교를 3편(주일대배·수요대배·방송설교) 준비해야 한다.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 이것을 다시 세번까지 검토·수정한 후 강단에 선다.

이것만으로도 일주일의 모든 시간을 쏙아야 하는 양이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는 늘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한다. 게다가 장례·혼례식주례, 이곳 저곳의 회의·집회 등 잡事も 한가하게 쉴 틈이 없다.

“일주일간의 시간 계획? 글썄, 난 시간·계획을 세워보질 못했어. 가능하면 오전엔 집에서 설교 준비·성경읽기 등으로 보내고, 오후엔 밖에서 일을 보고 싶지만 어디 마음대로 돼야지. 게다가 난 원래 모든 일에 계획을 세우지 않아. 계획에 매이기가 쉽고 계획을 알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제일이야……”

이렇게 말하지만, 그이만큼 정해진 일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는 기억력이

무척 좋고 세밀하다. 수십년 전의 사건을 일자와 시간까지 정확히 외우는 경우가 많다. 그의 빈틈 없는 계획은 매년 연초에 일년분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제출하며 여행이나 기타 출타중 방송설교를 사전에 다 준비해 놓는 면에서도 볼 수 있다.

바쁜 생활의 연속인 그는 생각해야 할 일, 정리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들이 쌓이고 쌓인다. 목회자는 성격지식 외에도 기타의 여러가지 지식·일 등을 많이 알고 익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이기에 이처럼 바쁜 생활은 무척 안타깝기도 하다.

시간 관리에 매우 철저하다

그래서 그는 시간을 무척 아낀다. 집회나 회의·의식 등 약속한 모임에 그는 철저하게 시간을 지키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여행이나 지방에 집회인도차 가는 경우도 그 여정을 통하여 또한 일일이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 그곳의 지식을 익히는 일에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설교 도중에 인용하는 상세하고 정확한 지식은 모두 이처럼 부스스리기 시간을 통하여 얻은 것들이다.

벌써 내년이면 회갑이다

내년이면 회갑이다. 설교집도 내고 기념사업도 하자고 말했더니,

“글쎄... 난 무슨 일을 하든지 꼭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첫째는 과연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고, 둘째는 과연 이 일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을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망신이나 안 당하면 다행일 것 같아.”

하며 웃는다.

그의 웃음에는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겠는가. 그에 대한 찬사와 칭찬 뒤에 보이지 않는 시기·비난 등을 그의 말대로 고집과 하나님 뺨으로 이끌고 왔는지도 모른다. 우리교회와 함께하기를 23년, 앞으로 남은 10년(우리교회의 정년은 70세다)에 그에게는 지난날보다 더 많은 해야 할 일들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는 젊은이들을 무척 아낀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대학부·청년부에 전담교역자를 두고 있다. 교회 설립 10주년을 맞으며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걸은 것도, 또한 작년 부활절을 계기로 「특별집회」를 시작한 것도 다 젊은이들을 위해서 시작한 것이다.

이처럼 젊은이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의 마음은 아마도 그의 일생에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준 의주서교회의 이기선 목사 때문인지도 모른다.

이기선 목사를 존경한다

그는 40여년 전의 일을 똑똑히 기억해 가며 매우 감동깊게 이야기한다.

“병이 나서 학교에 못 가면서부터 매일 이목사님택을 찾아가서 지냈지.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목사님의 일을 거들어 주기도 하고 성경을 배우곤 했지. 이목사님은 참으로 훌륭하셨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죽 꿰뚫고 계셨으니까…….”

그가 이기선 목사를 통해서 받은 감화와 영향은 일생을 지켜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 초대교회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이기선 목사는 많은 젊은이들을 키웠고, 「이목사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신앙의 변절자」가 있지 않음을 그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한다.

교회 위한 생각은 한이 없다

교육·선교·건축문제는 잠시도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설





립 10주년을 맞으며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는 표어를 내걸고 교육에 힘을 쏟아 오던 중 설립20주년에는 「성경학원」의 개원을 보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미국의 무디성경학원에서 큰 감명을 받은 그는 우리교회 성경학원도 그 수준, 그 내용에까지 끌어올리는 문제를 큰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 곧 500명의 재학생을 갖고 그들에게 성경과 기술을 가르치고 익히게 하여서 일년에 150명 정도의 직장선교사를 파송토록 하는 것이 소원하고 있는 성경학원인 것이다.

교회를 위하는 그의 생각은 끝이 없다. 생각이라기보다 이루기 힘든 욕심같기도 느껴진다. 「각부 주일학교에 축도를 해 줄 수 있는 전담 목사를 두어야 한다. 그래서 16명의 목사가 필요하다」는 그의 주장은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다. 현재 12부의 주일학교 외에도 몇 개의 주일학교를 더 신설해야 한다는 그는 언제 또 갑작스럽게 어떤 주일학교를 신설하자고 제의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고 오래전에 구상하고 계획하고 있던 것임을 우리는 그 때 상기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100명 선교사, 큰 성전에서의 꿈

또한 점점 심각해져 가는 건축과

선교문제에 대해서도 그의 꿈은 여전히 크다. 해외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여 복음에 빛진 것을 값아야 한다는 생각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은 아마도 이제부터의 나머지 생애 전부를 기울여 해야 할 일임을 다짐하고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교회가 성인 교인으로 1만명이 모일 때에는 해외선교사 100명을 파송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지. 또 하루 속히 후손들에게 물려 줄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물려야겠는데…… 물론 말을 안듣고 시간은 없고, 요즘은 무척 조급한 마음이 들곤 하지.”

그래서 그는 이러한 지혜를 여행을 통해서 많이 얻고 있다. 여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여행 중에도(그는 현재 구라파와 미국에 여행 중이다) 학생들을 외국에 유학보낼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려는 것도 한 목적이라고 귀띔해 준다. 또한 선교에 대한 각종 정보 수집 또한 시간이 허락되면 미국에 물러 무디성경학원을 좀 더 살펴보고 성전건축에 대한 자료도 좀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지난 번 여행시는 어느 잘 지은 교회당의 건축양식을 보려고 찾아

나섰다가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의 잦은 해외여행에 대해 일부에서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교회에서 어느 누구가 그보다 더 교회를 아끼고 사랑할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은 성공한 목회자로서

나이 20세 되는 해부터 그는 의주군 주내면의 창전교회, 용천군 동상면 성동교회, 의주군 월하면 추봉교회 등을 시무하다가 1939년 신사참배반대를 성명코 만주 등지로 온거 중 8·15해방을 맞았고 해방 후 평북 만포읍교회, 황주읍 재건교회를 설립하고 계속 여러 곳으로 다니며 순회집회를 인도하다가 1948년말 그보다 먼저 월남한 교인들이 안내자를 보내주기를 세 번, 극적인 월남을 하였다. 그 후 서울장충재건교회를 설립하고, 6·25 동안 중에는 부산 서부교회에서 시무, 부산 동일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통란이 끝난 후, 서울에서 다시 모인 때가 1953년. 동년 9월에 우리교회가 시작된 후 계속 23년 동안 지내며 그는 경인노회장, 전국경목위원장 등을 역임했고 1970년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5대 총회장에 피선되기도 하며, 능력있는 성공한 목회자로서, 국내외로 많은 명성과 찬사를 받고 있다.





↑ 1972년 도미니카, 필라델피아 어느 집회에서 설교중인 김창인 목사.

↓ 1972년 선교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방문시, 서만수 선교사 내외분과 기념사진.



어느 잡지에 실린 프로필

그렇지만 그 많은 찬사 가운데서도 우리는 지난 '72년 미국 여행시 필라델피아의 예수 안 믿는 어느 잡지에 실린 그에 관한 소박한 소개를 제일 좋아할지도 모른다.

「하얀 모시 두루마기에 하얀 고무신을 신고 나온 김 창인 목사는 필라델피아 순회설교에서 낮은 목소리로… 훗날 나의 무덤 앞에 비석이 있진 않진, 그 무덤 앞을 지나는 행인들에게 나의 설교가 계속될 수 있다면…」하고 말을 맺었다.

인자하고 소박한 그의 품위는 그의 전생애를 말해 주듯이 그는 오로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인류의 참다운 복음 전도자라 하겠다.

북미주 순회 선교일정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필라델피아, 워싱턴 D.C., 로스앤젤레스, 일본 그리고 귀국으로 짜여진 이번 순회설교에서 내내 그의 건강할 모습의 여정이 될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그것은 주안에 늘 안주(安住)하며 하나님과 늘 화해하고 있는, 지금까지 전생애를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결한 '그'였기에 남은 생애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위한 인류의 참다운 복음전도자로 살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구역 소식

■ 축하합니다(8월중 결혼)

- 김은성/김영호씨 3녀, 이명달 전도사 손녀—17일, 본교회당
- 이민구/이동규 장로, 김영남 집사 장남—23일, 본교회당
- 이호균/이희진 집사, 나화봉 권사 3남—28일, YWCA강당

■ 위로드립니다(8월중 별세)

- 하준오 군/한영돈 씨 아들—1일
- 최두은 씨/북정구역—3일
- 홍형국 씨/김윤정 씨 부군—9일
- 김정환 씨/정양배 씨 아들 9일
- 김동숙 씨/백희연 선생 조모—17일

◀교회설립 23주년 기념▶

◇성경 고사·퀴즈·암송대회 인내◇

- ◇ 일시 : 9. 26, 10. 3 ◇ 장소 : 충현교회
- ◇ 대상 : 충현교회 성도 ◇ 내용과 범위 : 필립보서
- 1. 영아부·유치부—1장 2. 유년부—1~2장
- 3. 초등부—1~3장 4. 중등부 이상—1~4장
- ◇ 방법 : 암송·퀴즈·고사
- 1. 영아부·유치·유년부—암송 2. 초등부—암송·퀴즈 3. 중등부 이상—암송·퀴즈·고사
- ◇ 실시일정 : 9월 26일, 10월 3일
- 1. 9월 26일 오후—퀴즈대회
- 2. 10월 3일 오후—암송·고사대회
- ◇ 실시방법 :
- 1. 퀴즈대회
- 1) 초등부 : 개인출전(인원제한 없음)
- 2) 중등부 : 개인출전(인원제한 없음)
- 3) 청소년부 : 부별출전(1부에 3명씩)
—고등부·대학부·청년부·제일성가대
- 4) 장년부 : 부별출전(1부에 3명씩)
—장·노년부, 남·여 전도회, 여성성가대
- 2. 고사대회
- 중등부 이상 개인출전(인원제한 없음)
- 3. 암송대회
- 영아부부터 노년까지 : 개인출전(인원제한 없음)
- ◇ 시상
- 1. 퀴즈부문—각부별로 1~3등
- 2. 고사부문—1~3등
- 3. 암송부문—1) 전장·암송상 2) 각부별로 1~3등
- 4. 최우수 구역상—퀴즈·고사·암송 등의 각부문에 참가한 각 참가자의 소속 구역별로 총점을 내어 최우수 구역 상을 선발하여 시상
- ◇ 기타
- 1. 퀴즈·고사대회는 예상문제에 준함(예상문제는 9월 5일부터 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배포함)
- 2. 주일학교 각부, 자구역의 적극적인 협력·요망
- 3. 참가신청 방법 안내 및 신청서 배포—9월 12일 1976년 9월 5일

대회장 김 창 인

■ 구역장 노트⑧ ■

유동성에 처한 구역운영

백 성 통 목사
(구역위원장회장)

도시교회의 교인들에게는 유동이 많다. 직장에 따라 주소가 옮겨지게 되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로 되어 있다. 교회를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거의 중류 이하의 저소득층의 사람들이다.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아직 일정한 교회를 정하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로 전전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대처해서 어떻게 하면 ① 안정된 교회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구역운영을 통해서 강구되어야 할 문제이다. 특히 광범위한 구역조직을 가지고 있는 큰 교회의 경우 유동성에 상응한 구역운영을 함으로써 ② 등록교인들의 실존을 최대한으로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의도는 ③ 성도를 간에 거리감을 해소하여 성도의 교제에 도움이 되게 하자는 데 있다.

유동성에 상응한 구역운영이란, 유동이 많은 교인들을 구역장과 권찰들이 그들의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해 주도록 하자는 구역운영의 한 요령이다. 구역운영은 결코 행정적인 방법에서만 그 효과를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구역운영은 인간 영혼을 다루는 일에 측면적인 특수 작업이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강요당하거나 간섭받기를 싫어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러므로 교회의 법을 따지기 전, 교인으로 그런 법이나 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계몽해야 한다. 이런 인식의 문제는 적어도 세례를 받을 때까지는 충분히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세례를 받은 후에도 교회의 제도나 규칙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알고 있다 해도 개인의 성격의 차이 때문에 쉽게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한 가정에서 이웃 구역으로 옮겨졌을 때 본인은 이전 구역 식구들과 계속 사귀기를 원한다면 행정적으로는 작오 없도록 하면서도 좀 여유를 두고 새 구역으로 이끄는 방법을 양 구역 권찰간에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간혹 구역을 옮기는 것을 계기로 아주 실종될 우려가 있는 식구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사전에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이사한 후에는 기어코 찾아 해당구역에 넘기도록 해야 한다. 한 사람 전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그대로 두어서 잘못되는 일이 있다면 중대한 문제이다. 구역의 책임을 맡은 우리로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무책임하고 안일한 생각은 할 수가 없다.

요는 지역적인 거리가 어쨌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이웃들이 되어 보자는 데 있어야 한다.

선한 청지기의 생활

정 상 우 목사

<교육위원장·원간총원 편집위원>

>차 례<

1. 청지기 직분의 정의
2. 청지기 직분의 기본원리
 - 가.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소유주시다
 - 나. 하나님의 것을 임시 보관하고 관리한다
 - 다. 각자에게 맡기는 달란트를 주셨다
 - 라. 자기 달란트로 충성해야 한다
 - 마. 활용하지 않으면 빼앗긴다
 - 바. 반드시 결산이 있다
3. 청지기 직분의 실제
 - 가.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
 - 나.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
 - 다. 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을 가리켜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교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들의 생활원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위에서 살아갈 때에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 직분의 기본원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생활에 실천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가장 보람되고 풍성한 성도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며, 훗날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스런 종아!”하고 칭찬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영광스런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해서 ①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② 청지기 직분의 기본원리 ③ 청지기 직분의 실제(재물·복음·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만)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선한 청지기는 교회를 자주 바꾸지 않고 한 교회에서 충성해야 된다고 역설하는 정상우 목사〉

1.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

청지기란 말은 요사이 우리 한국사회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 말이다. 그러나 옛날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많이 쓰던 말로서 양반집의 수청방(守廳房)에서 여러가지 주인의 일을 맡아 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약에서 창세기 43장 16절에 처음으로 청지기(ish 'al bayith)라는 말이 있는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대신으로 있을 때 그의 창고를 맡아 관리한 사람을 「청지기」라고 번역했다. 그러나 「흠정역 영어성경」(the Authorized Version)에 보면 창세기 15장 2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라”라고 말한 나의 「상속자(ben-meshek)」를 나의 청지기(the steward of my house)로 번역하였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며 상속까지 받을 수 있도록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신분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열왕기상 16장 8절에 궁내대신 아르사에 대해서 「궁내대신(ha-sokhen)」을 「청지기」로 번역했으며 역대상 28장 1절에 다윗이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협의할 때에 참석했던 「감독」을 역시 「청지기」로 번역했다. 그러기에 여기서는 청지기가 왕을 초대하거나 나라의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높은 벼슬을 가진 존귀한 신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다니엘 1장 11절에 궁정에서 왕자나 귀족들의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왕의 살림을 맡아 보는 사람으로 「환관장(ha-melcar)」을 「청지기」로 번역하였다. 여기서는 청지기가 교양이 있고 지성이 있는 존귀한 신분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약성경에서 청지기라는 말은 예수님의 비유와 교훈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역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이나 사무를 맡아 관리하는 주인의 대리자를 가리키고 있다(마 20:8; 눅 8:3; 12:42; 16:1 등), 특히 사도 바울은 청지기를 「전리와 교회를 맡아 관리하는 교회 직분자」로 말하였다(고전 4:1, 우리말 성경에는 「맡은 자」이나 원문에는 「청지기」(οἰκονομος)임. 딤후 1:7). 그리고 사도 바드로는 좀더 청지기의 뜻을 넓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청지기들이다」고 말했다(벧전 4:10).

그러므로 이제 신·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청지기는 어떤 사람인가를 정리한다면, 첫째로 구약에서는 주인의 집(자녀·재산·사무 등)을 맡아 관리하는 주인의 대리자로서 주인한테 신임받는 사람이며 또한 존귀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고, 둘째로 신약에서는 복음과 교회를 맡아 관리하며 봉사하는 교회의 직분자들(목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

사·장로·집사·권찰·교사·성가대원 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청지기들이다.

그리고 청지기 직분이란 무엇인가를 정리한다면 「맡은 자의 직분」으로서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으로 확신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관리하는 직분」인 것이다. 때문에 이 청지기 직분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원리요 하나님의 동역자(고전 3:9)로서의 생활방식인 것이다.

2. 청지기 직분의 기본원리

마태복음 25장 14-30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의 비유」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이 뜻하는 청지기 직분의 기본적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다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종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이야기가 있다. 여기에 「그의 종들」, 「자기 소유(달란트)」라는 말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주인은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종들」도 그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도 모두 주인의 것이라는 말이다. 당시 종의 신분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속한 한 재산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리키는 청지기 직분의 「첫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creator)이시며 소유주(owner)가 되신다」는 것이다. 이 원리는 성경 첫 장 첫 절에서부터 선언하고 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 그리고 만물은 모두 그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하고 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와 그의 것이라」(시 24:1).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물은 오직 그의 소유가 됨을 증명하는 말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진리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고백이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해서 성자와 성령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다. 언제나 성도의 신앙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다. 더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창조의 원리」(창 1:26)에서보다 「구속의 원리」에서 찾게 된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 20).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롬 14:8, 9).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이 첫째 원리를 바로 인식하여야 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창조주시며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그 내려 주신 은혜를 늘 감사드리세」(새찬송 572장 후렴) 하고 중심에서 찬송 부를 수 있어야 한다(참고/유 41:11; 시 89:11; 90:1, 2; 102:25-28; 대상 29:14; 학 2:8; 막 10:6; 요 1:1-3).

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임시 보관하고 관리하는 청지기들이다

또 14절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는 말과 15절에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다」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 「맡겼다」 「주었다」라는 말은, 종들은 본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으며 또 종들은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주인이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어 청지기로 그 달란트를 관리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둘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임시 보관(possess)하고 관리(administer)하는 청지기들이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첫째 원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우리는 흔히 자기의 소유권에 대해서 주장하는 일이 많다. 그래서 「내 것」 「네 것」하고 소유권을 주장하고 구별한다. 그러나 분명히 청지기의 원리에서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소유권」(ownership)과 「점유권」(possession)을 바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과 그의 관계」에서는 결코 주장할 수 없다.

우리의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만 은혜로 주신 것을 일시적으로 맡아 있을 뿐이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딤후 6:7),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같이 자랑하느냐」(고전 4:7)라고 한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나의 생명·건강·재능·재산·직분 등 나에게 있는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내 것은 없고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도 사실은 내 것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로 드리는 것이다.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 자랑하거나 인색할 수가 없다.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도 사실은 내 것 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도로 드리는 것이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하여 귀한 재물을 온 백성과 함께 바친 후에 기도하기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였다. 이 얼마나 충성스런 청지기로서의 고백인가. 다윗은 정말 충성스런 청지기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쓰셨으며 축복하셨던 것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자. 그는 「내 것」 「내 것」 「나를 위하여」 하고 자기 소유임을 주장했다. 그 결과 그는 재산도 생명도 모두 빼앗김을 받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던 것이다(눅 12:20). 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왜 탕자가 되었는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분깃을 자기의 소유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것인데 다만 아버지의 은혜로 받게 되는 귀한 재산인 줄 모르고, 거저 생긴 자기의 것으로 알았기에 귀한 줄을 몰랐다. 그러기에 그는 방탕하였고 돼지우리 속에 드러누워야 할 탕자의 비참한 꼴이 된 것이다.

이 모두가 청지기로서 1,2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이다. 청지기로서의 사명의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말 이 청지기 직분의 1,2의 원리를 바로 알면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귀하게 간직하고」, 「바르게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언제나 이 청지기 직분의 둘째 원리를 바로 인정해야 한다(참고/창 2:16, 17; 3:13; 렘 27:5; 단 2:37, 38; 호 2:8, 9; 신 8:18; 시 8:6-8; 행 17:25).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맡겨 주셨다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분배하였다”라는 말이 나온다. 주인은 종들의 재능을 알고 있기에 꼭같이 주지 않고,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씩 차별 있게 분배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은사의 다양성(diversity)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세계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권으로(기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각자에게 알맞는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은 없다(이런 사람은 실상 존재할 수도 없다). 그리고 또한 누구나 다 똑같이 받은 것도 아니다. 우리들이 지니는 생명·재산·재능·건강·직분 등 모두가 차이가 있다. 성령의 은사도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로서 성령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고전 12:8-10).

그래서 헤딩가(Hedinga)는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물을 이상하게 나누시는 것 같으나 거룩하게 분배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너무 적게 받았다고 생

각지 못하게 하신다” 하였으며 나스트(W. Nast)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이니 스스로 자랑하거나 또는 부끄러워할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

여하튼 이 원리에서 볼 때, 아무도 못 받은 사람이 없다. 그러나 다 똑같이 받은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불공평하게 주신 것도 아니다. 각자에게 알맞는 것으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원리를 바로 깨닫고 있을 때 우리는 내가 많은 「달란트」를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다. 그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이다(눅 17:10) 하고 감사하면서, 겸손할 것뿐이다.

또한 나는 적게 받았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시기하거나 부끄러워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다만 오늘에 내게 주신 「달란트」가 나에게 합당하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 이 「달란트」를 오늘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자족」과 「감사」 그리고 「증거」를 가지고 충실해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전 7:24) 하고 권면하였으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받게 된 사실에 대해서 “내가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롬 11:13) 하고 간증하였던 것이다. 일찍이 「카라일」(Carlyle)은 말하기를 “만일 내 직업이 나를 영화롭게 못한다면 내가 내 직업을 영화롭게 하리라” 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링컨」(Lincoln) 대통령은 말하기를 “나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자랑하는 사람을 달라 더욱 일을 하면서 노래하는 사람을 달라”고 했다.

이처럼 이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은 오늘에 내게 주신 달란트(직분·직업·등)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기며 일하는 것이다. 사실 사람의 참된 가치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직업을 두고 생각할 때 직업이란 어떠한 직업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이 루터(Luther)나 칼빈(Calvin) 같은 개혁자 등이 주장하는 말이다.

영어로 직업이란 말을 「보우케이션(vocation)」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뜻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오늘에 내가 받은 달란트에 대하여(그것이 많은 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하게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긍지를 가져야 한다(참고/시 16:5, 6; 시 84:10; 전 5:19; 롬 12:3-11; 고전 12:14-31; 엡 4:1-11; 요 21:22).

라. 모든 청지기들은 말은바 달란트로 충성 하여야 한다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

불신자는 “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했느냐”로 심판받으나, 성도는 “네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느냐”로 심판받는다.

사하여 또한 20절에 “주여 보소서 내가 5 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는 말이 있다. 5 달란트와 2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을 위해 잘 활용하여 배나 남게 주인에게 바쳤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네째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모든 청지기들은 그 주인(하나님)을 위해서 받은바 달란트로 충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결코 그대로 놓아 두거나 또는 자기들을 위해서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27절에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말씀을 보자.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번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고 책망하였다. 이것은 바로 달란트를 주신 목적을 가르쳐 주는 말이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여러가지 「달란트」를 주셨을까?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또한 그대로 묻어 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주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구축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서 활용하라고 주셨다. 활용하되 충성스럽고 이가 남도록 활용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은 자[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전 4:1)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바로 알고 확신할 때,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며 충성하게 된다. 우리가 장사를 하든지, 공부원이 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삶의 목적, 일의 목적이 뚜렷하게 세게 된다(고전 10:31). 더우기 교회 직분을 맡았을 때 내가 맡은 이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봉사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봉사하며 충성하게 되는 것이다(골 3:23).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는 번덕부리는 사람들이 있다. 봉사하는 데 이유가 많은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이 청지기 직분의 원리를 생각하지 않고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는 내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참고/빌 1:29; 롬 14:8; 히 3:1-6; 계 2:10; 고전 10:31; 빌 1:20,21; 사 43:7,21).

마. 받은바 오늘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라는 말과, 28절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리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라는 말이 있다. 주인은 충성과 성실로 받은 달란트를 잘 활

용한 종들에게 칭찬하면서 더 많이 주었으며 활용하지 않은 종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아 있는 자에게 더 주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다섯째 원리」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받은바 오늘의 달란트를 바로 충성스럽게 활용하면 더 많은 것으로 주시고 받은바 오늘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 한 번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에 받은 달란트에 충실하면 반드시 더 많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 사실이야말로 청지기 직분에 대한 귀한 원리이다. 그러므로 오늘에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리」와 「일」에 세째와 네째 원리에 따라 충성하면, 반드시 앞으로 많은 것으로 더 주시는 것이다.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우리들의 상식적인 경험이며 성공의 과정이다.

미국의 교아출신으로 삼림왕이 되고 거부가 된 킵슨(Kibson)씨에 관하여 이런 일화가 있다. 하루는 킵슨 씨에게 어릴 때 같이 교아원에서 자란 친구가 찾아왔다. 이 친구는 일정한 직업도 없이 가난하게 지내는 처지였다. 이 친구는 자기와 같이 교아 출신으로 어떻게 큰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결을 배우러 온 것이다. 사정을 자세히 들은 킵슨 씨는 앞으로 10년간 자기가 지키는 조건을 엄수하고 그래도 잘 살지 못하면 자기의 재산을 나누어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미 부자가 되는 보장을 받은지라 그 친구는 킵슨 씨의 조건을 순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조건들이란 ① 하나님을 잘 믿고 주일을 꼭 지킬 것, ② 술을 마시지 말 것, ③ 무슨 일이든지 적은 일이라도 내가 하는 일에는 쉬지 말고 부지런히 하라는 것이었다.

킵슨 씨와 헤어진 그 친구는 돌아오는 길에 어떤 철공소에서 직공모집하는 광고를 보고 거기에 들어갔다. 이제는 부자되는 보장을 받아 놓았으므로 다만 킵슨 씨와의 약속만 지키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술을 마시지 않고, 맡은 일에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얼마 후 그는 그 철공소 주인에게 인정받아 월급이 오르고, 불과 몇년 후에는 지점장으로 영전되어 많은 연봉을 받아 부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친구는 킵슨 씨를 찾아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도 오늘의 받은 적은 달란트에 충성할 때 내일의 많은 달란트로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 직분의 원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원칙이고, 반면에 오늘에 주신 달란트에 불충성하면 주셨던 것까지 빼앗는 것이 성경이 가르친 무서운 경고이다(참고/눅 12:21, 34-48; 행 13:21-23).

바.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19절에 “주인이 돌아와서 저희와 회계할새”라는 말이 있다. 주인은 돌아왔을 때 종들을 불러 자기가 준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가장 귀한 달란트 (복음)를 활용하지 않은 불의한 청지기로 크게 책 망받을 것이다.

달란트에 대해서 회개하였다. 이 자리에서 다섯, 세 달란트 받은 중들에게는 칭찬하면서 상을 주었고, 한 달란트 받은 좋은 것은 있는 것까지 빼앗아 책망하면서 어두움에 던져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청지기 직분에 대한 「여섯째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 즉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결산하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받은 달란트는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임시 맡아 있을 뿐이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가 있다. 그리고 그 날에 내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를 알아 보시며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 심판의 전리는 성경이 말하는 엄연한 전리이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 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고후 5:10).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계 20:10-15). 이 심판의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로 심판을 받게 된다. 첫번째 심판은 “네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였느냐?” 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은 「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구원과 관계가 된다. 성도는 이 심판을 받지 않는다. 두번째 심판은 “네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였느냐?” 하는 심판이다. 이 심판은 「청지기 직분에 대한 심판」으로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과 관계되는 것이다. 이 심판은 성도가 받는 심판이다. 그리고 이 청지기 직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은 결코 세상에서 받았던 달란트의 양에 있지 아니다. 다만 청지기로서의 「충성심」과 「성실성」에 있다. 즉 청지기 직분에 대한 「네번째 기본원리」에 준한다. 이것이 하나님나라의 심판의 기준인 것이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는, 받는 달란트의 「양」에 따라 일의 성격도 받는 대우도 크게 차이가 있다. 그러나 결산의 날에는 그렇지 않다. 그러기에 어떤 경우에는 목사보다도 집사가, 장로보다도 무명의 평교인이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를 높은 부흥사보다도 이를 없이 농어촌에서 고생하며 목회하는 전도사가 더 영광스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오늘 이 세상에서 받은 달란트에 지나치게 신경을 필요가 없다. 잠시동안 이 세상에서 오늘 내가 받은 적은 달란트라도 그저 충성만 하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빛나는 보상을 반드시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성도)는 언제나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떠한 대우를 받느냐”보다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에 더욱 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야 한다.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어떻게 세상에서 대우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이 주어지며 주님으로부터 대우받을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참고/마 25:31-46; 눅 16:19-26; 롬 14:12; 갈 6:7-10; 딤후 4:7,8; 벧전 5:1-4).

3. 청지기 직분의 실제

위의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일상생활을 통해서 신앙과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청지기 생활을 성실하게 실천해서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제 우리가 충실해야 할 청지기 직분 가운데 재물·복음·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만 지면관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

가.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

선한 청지기는 반드시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 이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은 모든 청지기 생활에서 그 자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첫 단계가 된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바로하는 사람은 다른 면에서도 그 직무에 충실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정말 돈이란 데이비드 맥크래리가 쓴 「금전은 인격 시험품」이라는 책에서 말하듯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볼 수 있는 시험품이다. 그래서 “돈을 맡겨 보라” “돈 거래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서양 속담도 있다.

예수님께서도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고 말씀하셨다. 때문에 선한 청지기는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서 다만 나는 그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재물의 수입을 계속해서 얻되 정직과 근면으로 얻으며(돈을 올게 벌며), 얻어진 재물을 안전하게 저축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지혜롭게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재물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일조 헌금이다. 이 십일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청지기들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헌금의 기준이다. 때문에 십일조 헌금을 드리지 않는 성도는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없다. 아무리 다른 면에서 충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로서 인정받을 수가 없을 것이다(말 3:8).

십일조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 것은, 십일조는 모세의 율법으로 주어진 명령만이 아니라 율법 이전에 믿음의 조상이 행한 헌금이었다(창 14:20; 28:2).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십일조 헌금을 인정하셨으며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가르쳐 주셨다(마 23:23). 물론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십일조 생활을 성실하게 준행하셨을 것이다(롬 5:19; 갈 4:4).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율법의 중시되는 요구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다. 즉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이것은 십일조 헌금에도 의·인·신으로 드러야 한다는 교훈이 된다.

그럼, 십일조의 「의」는 무엇일까? 이는 십일조를 「바르게」 드리는 것으로서 ① 정당하게 수입된 것에서

선한 청지기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교회가 믿는 교리가 무엇이며 조직과 사업이 어떠한지 바로 알 아야 한다.

성별하며, ② 자기 마음대로 십일조를 사용하지 말고 십일조를 바치면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인」은 십일조를 바칠 때 인색한 마음이나 탐심으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바치라는 것이다. 「신」은 십일조를 바치되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이다. 믿음이 없으면 십일조를 바칠 수도 없거니와 바친다 하더라도 선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성도의 십일조 헌금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소유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하는 청지기로서의 인정[고백]과 감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또한 십일조 헌금은 성도의 무거운 짐이 되는 의무만이 아니라 성도가 이 땅 위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며 특권이다(말 3:10). 19세기 전 세계에 석유를 대주던 미국의 석유왕 록펠러는 8세 때 십일조 헌금에 대한 설교를 듣고 결심하여 처음 받은 봉급 20센트에서 십일조를 바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소학교(국민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가 1870년에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사장이 되었던 것이다. 그의 비망록에 “제신이 자주 늘어나도 어기지 않고 그대로 꼭꼭 바치는 것이 내 평생의 행복이었다. 내 자녀들에게도 꼭 가르쳐야겠다”고 기록하였다고 한다.

나.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말미암아 타락되어 멸망받게 될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인 것이다(눅 2:10, 11).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 중에서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다(행 1:8). 복음은 나에게만 주어진 선물이 아니다. 남에게도 나눠주도록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고전 9:16, 18; 롬 1:15; 딤후 4:2).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이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는 복음을 내가 먼저 바로 알아야 한다(갈 1:7-12). 둘째는 복음을 내가 바로 믿어야 한다(롬 10:8-12). 세째는 복음대로 내가 바로 살아야 한다(약 1:22-27). 네째는 복음을 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즉 전도하는 일이다(딤후 4:2).

전도는 증성된 청지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만일 전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면 이는 선한 청지기가 아니다. 가장 귀한 달란트(복음)를 활용하지 않은 불의의 청지기로 크게 책망받을 것이다. 또한 이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한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단 2:3; 딤후 4:7-8).

이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며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길이니, 우리 민족이

복받은 길도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에 대한 청지기 직분에 충성하는 데 있는 것이다.

다. 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

선한 청지기는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며 특히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하며 힘써 봉사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세우신 주님의 몸이다(행 20:28; 엡 5:25). 비록 땅 위에 있는 보이는 교회가 불완전하고 부족된 것이 많아도 선한 청지기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사랑하고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한다. 그럼, 어떻게 교회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첫째로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① 우리 교회가 믿는 교리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② 우리 교회의 조직과 사업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한다.

둘째로 선한 청지기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 ① 교회에서의 모든 공집회에 참석해야 하며 ② 성도의 교제에 덕을 세워야 하며 ③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그리고 선한 청지기는 결코 이 교회 저 교회로 돌아다니지 아니한다. 이 목사 저 목사의 설교만을 들으려고 돌아다니지 않는다. 한 교회를 정하고 충성되게 섬기는 것이다(렘 2:36). 사실 교회를 자주 바꾸는 사람, 한 교회를 옮기게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영적인 성장을 바로 할 수 없으며 선한 청지기로 중성할 수가 없다. 교회는 성도에게 어머니와 같다. 그런데 만일 어머니가 자주 바뀌는 자녀들이 있다면 얼마나 불행하겠는가.

세째로 선한 청지기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힘써 봉사한다. ① 무엇보다도 기도한다. 그리고 ②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역자를 주 안에서 잘 돕고 보살핀다. 교역자가 마음껏 복되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도모하며 협력한다(갈 6:6; 딤후 5:17-20). ③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봉사한다.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봉사를 힘써 한다. 이것이 교회에 대한 선한 청지기의 생활이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딸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다. 청지기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오늘에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지는 어떠한 것이든 오직 선한 청지기로 충성하자. 그래서 앞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달란트를 받는 청지기들이 되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자. 결코 한 달란트 받은 중처럼 오늘이 적은 달란트라고 멸시하지 말자. 오늘에 주신 달란트에 게으르지 말자.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다섯세 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착하고 충성스런 종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자.

(*)

충현교인의 신앙명세서

정 은 표 집사

(월간충현 간사·교육위원)

- 교인 전체에 대하여
□ 새로 등록된 교인에 대하여
□ 제적된 교인에 대하여
□ 교인 거주 분포와 출석수 변동에

-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 주일학교 학생의 신앙연한·신급·가정의 반응에 대하여

□ 교인 전체에 대하여

【질문 1】 우리교회 교인의 남녀 비율은 어떠합니까?

답 1 ▶ 6:4로 여자가 높다. — 1976년 6월 30일 현재 2,340세대에서 모두 5,445명이 우리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이중 남자가 2,152명으로 전체의 39.5%, 여자가 3,293명으로 60.5%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평균 2.3명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셈입니다. * 유아세례자 이외는 15세 이상만 계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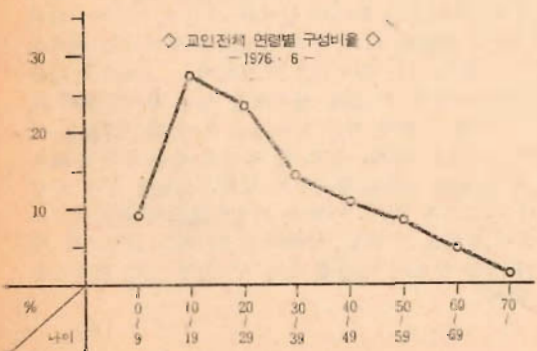
【질문 2】 우리교회 교인 중 수세자는 모두 몇명이나 됩니까?

답 2 ▶ 수세자는 모두 3,968명이다. — 좀더 세분해 보면 세례교인이 3,357명으로 전체의 61.6%가 되며 유아세례 교인은 611명으로 전체의 11.2%, 학습 교인은 482명으로 전체의 8.9%, 원입교인이 995명으로 전체의 18.3%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교회 교인은 10명 중 7명은 수세자입니다.

【질문 3】 우리교회 교인 2,340세대의 가족식구는 모두 몇명이며, 이중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몇명이나 됩니까?

답 3 ▶ 가족식구는 모두 13,338명이다. — 그러므로 1세대당 평균 가족수는 5.7명이 되는 셈이며 이중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6,008명으로 전체의 45%가 됩니다. 따라서 가족중 불신자는 반수가 약간 넘는 7,330

(표 1)



명으로 전체의 55%가 됩니다. 또 예수를 믿는 6,008명중 약 90%인 5,445명만 우리교회에 나오고 있으며 약 10%경도의 563명은 타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 유아세례자 이외는 15세 이상만 계수함.

【질문 4】 현재 우리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중 우리교회 출신과 타교회 출신은 각각 어느 정도나 됩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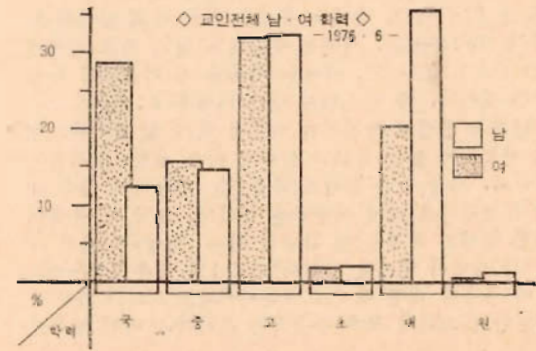
답 4 ▶ 6:4정도로 타교회 출신이 더 많다. — 우리교회 출신과 타교회 출신을 구분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무리가 따르지만 세례를 받거나 학습문답을 한 곳이 우리교회일 경우에는 우리교회 출신으로 보고 타교회일 경우에는 타교회 출신으로 구분하였읍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학습 또는 입교문답을 한 사람이 전체의 42.4%이었으며 나머지 57.6%가 타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거나 학습문답을 한 타교회 출신이었읍니다.

* 유아세례자 이외는 15세 이상만 계수함.

【질문 5】 우리교회 교인중 몇살된 사람이 가장 많고 몇살된 사람이 가장 적습니까?

답 5 ▶ 10대가 가장 많고 70세 이상이 가장 적습니다. — 전체의 28.2%가 10~19세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20대, 30대 순으로 많으며 70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약 2%로서 가장 적습니다. (표 1 참조) * 15세 이상의 등록교인과 주일학교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의 학생 출석수를 계수함.

(표 2)



【질문 6】 우리교회 교인들의 학력별 구성은 어떠한가?

답 6 ▶ 고졸자가 가장 많으며, 모두 1,775명으로 전체의 32.6%이다. —남자는 대졸자가 가장 많아 2,152명의 남자 교인가운데 36.8%인 792명이며 여자는 고졸자가 가장 많아 3,293명의 여자 교인가운데 32.5%인 1,070명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고졸자가 전체의 32.6%로서 가장 많고 대학원 졸업자가 0.7%로서 가장 적으며, 대졸자가 26.9%, 국졸 22.5%, 중졸 15.3%, 초대 2.0%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 2 참조> * 재학생도 졸업으로 잡아 15세 이상의 등록 교인만 계수함.

□ 새로 등록한 교인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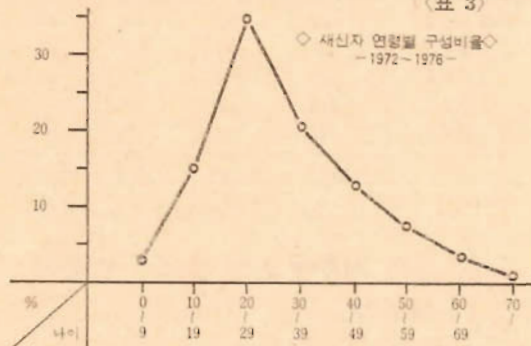
【질문 7】 우리교회에 새로 등록하는 교인은 일년에 몇명이나 됩니까?

답 7 ▶ 최근 5년동안에 모두 2,672명이 등록되었다 —1972년부터 1976년 7월말 현재까지 새로 등록한 새신자 수는 모두 2,672명이나 됩니다. 이중 남자가 1,128명으로 42.2%가 되며 여자가 57.8%로서 1,554명입니다. 이를 계절별로 보면 봄(3~5월)에 등록한 새신자가 전체의 32.4%로서 가장 많으며 월별로는 8월이 4.5%로서 가장 적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1972년에 432명, 1973년에 538명, 1974년에 547명, 1975년에 715명으로 1975년이 가장 많고 올해인 1976년은 7월말 현재의 추세로 보아 7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 새신자 등록카드에 의한 계수, 주일학교 새신자는 계수 안함.

【질문 8】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 가운데 몇살된 사람이 가장 많습니까?

답 8 ▶ 20대가 가장 많다. —20~29세의 20대가 전체의 33.6%로서 대략 1/3정도가 되는 셈입니다. 다음은 21.4%로서 30대가 많고 70세 이상의 고령자는 약 1.4%로서 가장 적습니다. <표 3 참조> * 새신자 등록카드에 의한 계수(1972년~1976년), 주일학교 새신자는 계수 안함.

【표 3】



【질문 9】 우리교회에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들의 출신(본적지)별 분포는 어떠한가?

답 9 ▶ 서울·경북·전남 출신이 전체의 약 반이 된다 —서울이 30.2%로서 가장 많고 다음이 경북·전남·충남·경기 순이며 제주·함북·국외 출신이 가장 적습니다. 또 이북 5도 출신이 전체의 13.2%이며 이



『충현 — 그는 누구인가?』를 밝히 보려던 원래의 뜻을 못 이루었다고 말하는 필자는 여름특별휴가와 더 많은 시간을 이번 조사를 위해 비쳤다.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쩌다 같은 교인을 만나면 “당신도 교인이시군요” 하는 확인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따라붙는 말이 있다.

“당신 교회 교인은 몇명이나 되죠?”

“주일 낮에 배 출석수가 2천 5백여명 됩니다.”

“어이쿠, 저 상당히 큰 교회인데요! 교회 이름이 뭐니까?”

왜,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교인수부터 묻는지 그 까닭을 아는 사람은 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덩치만 크고 실속은 없는지 조금들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또 교회가 바스쳐릴 정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 내려놓아야 할 곳에 내려주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태우기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을 언제, 어디다, 어떻게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를 올바르게 결정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개개인의 형편과 처지가 잘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말한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말을 실행하여야 할 때에 이르러는 전혀 말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교회만큼 개인의 신상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새신자등록카드, 교사기록카드, 학생생활기록카드 등을 비롯하여 수많은 입회원서 등등. 거기에는 반드시 이름·성별·생년월일·본적지·직업·학력·경력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교회생활을 어지간히 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것들을 수차례 썼을 테지만 그 기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모르는 것 같다.

“대체 그런 것들이 교회에서 무슨 필요가 있던 말인가.”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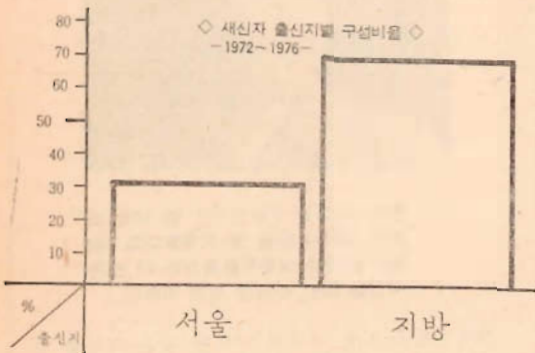
『충현 — 그는 누구인가?』를 밝히 보려던 처음의 뜻은 완전히 좌절되었다. 정매기만 있고 뼈는 없는 사람처럼 그 어느 기록 하나도 실상이 쉽게 파악되도록 명확히 기록되거나 정리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충현교회의 역사를 말해 달라고 할 때 우리는 이 말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의 머릿수만 세면 되는 거야.”

■ 증현교회 교인에 대한 1문 1답 ■

남 출신이 전체의 86.8%입니다. <표 4 참조> * 새신자 등록카드에 의한 계수(1972년~1976년), 주일학교 새신자는 계수 안함.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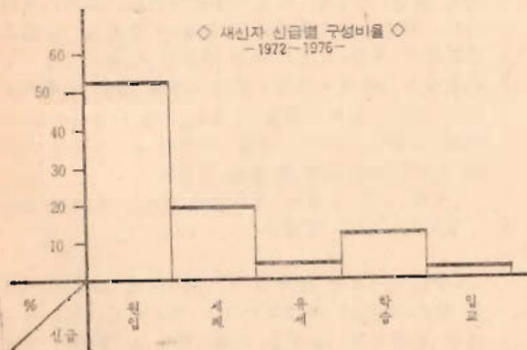
《질문 10》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들의 학력 구성은 어떠한가?

답 10 ▶ 고졸자가 전체의 31.5%. — 교인 전체의 학력 구성과 같이 새신자도 역시 고졸자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이 국졸자도 전체의 25.1%, 대졸자가 23.2% 중졸·초대졸, 대학원졸 등의 순입니다. 남녀별로 볼 때는 대졸자의 수가 가장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남자가 32.6%인데 비해 여자는 16.4%만이 대졸자라 나타나 있습니다. * 새신자 등록카드에 의한 계수(1972년~1976년), 주일학교 새신자는 계수 안함.

《질문 11》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 가운데 수세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답 11 ▶ 수세자는 2,672명의 새신자중 873명이다. —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 가운데 수세자는 전체의 32.7%나 되며 학습·입교인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47.4%로서 약 반수 가까이 되는 셈입니다. 이들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21.1%, 여자가 26.9%이며 연도별로 보면 13.6%로서 1975년이 가장 많습니다. <표 5 참조> * 새신자 등록카드에 의한 계수(1972년~1976년), 주일학교 새신자는 계수 안함.

(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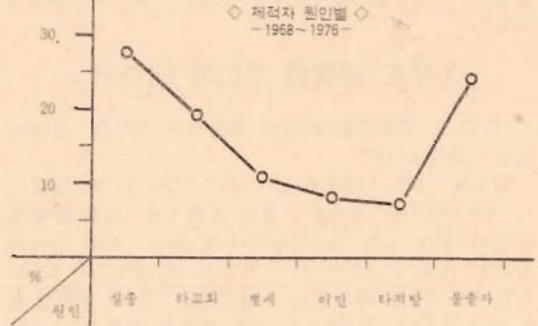


□ 제적된 교인에 대하여

《질문 12》 우리교회를 떠난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떠났으며 일년에 몇명이나 됩니까?

답 12 ▶ 1968년 이래 모두 1943명이 우리교회를 떠났다. — 구역권찰회의 공식기록에 의하면 1968년부터 1976년 7월말 현재 우리교회를 떠난 교인수는 남자가 852명으로 전체의 43.8%, 여자가 1,091명으로 46.2%입니다. 이를 원인으로 보면 이사한 곳을 몰라 심방이 불가능한 심종자가 전체의 27.7%로 가장 많고, 여타가지 이유로 교회를 출석지 않거나 낙심하여 출석지 않는 장기불출석이 24.7%이며 타지방으로의 이사가 8.2%로 가장 적습니다. <표 6 참조> * 제적과 교적카드(1968년~1976년)에 의한 계수.

(표 6)



《질문 13》 같은 기간중,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 숫자와 제적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 어떠한가?

답 13 ▶ 1972년 이후 실제적인 숫적 증가율은 새로이 등록한 새신자의 51.8%이다. — 1972년부터 1976년 7월말까지의 비교결과를 보면 이 기간에 우리교회에 새로이 등록한 교인수는 모두 2,672명인데 우리교회를 떠난 교인수는 1,289명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 기간에 증가된 교인수는 1,383명으로 약 반수정도밖에 안되는 셈인데 새신자중 낙오자가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면 실제적인 증가율은 더욱 낮아지리라고 봅니다. <표 7 참조>

(표 7)

비교년도	새로등록	교회떠남	증가수	증가%
1972	432	160	272	63.0
1973	538	283	255	47.4
1974	547	281	266	48.6
1975	715	319	396	55.4
1976	440	246	194	44.1
	2,672	1,289	1,383	평균 51.8

* 1976년은 7월 31일까지

□ 교인 거주분포와 출석수 변동에 대하여

《질문 14》 동·서·남·북 등 4개 부로 나누어진 구역권찰회의 각 지역의 교인 거주분포는 어떠한가?

답 14 ▶ 가장 많은 곳은 동부로 모두 1,571명이다. — 1976년 8월 31일 현재 총 87개 구역(동부 21구역 서부·남부·북부 각 22구역)의 교인 총수는 5,516명에 2,438세대입니다. <표 8 참조> * 구역권찰회 월말 집계에 의한.

(표 8)

◇ 지역별 교인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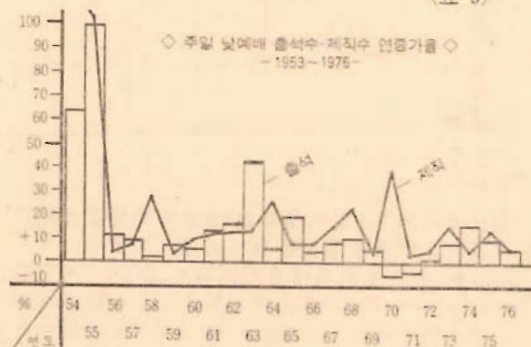
부	세대수	교인수	세 배		아 세		학 습		원 입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동	676	1,571	315	601	80	89	85	64	163	174
서	573	1,269	228	518	49	67	66	36	133	172
남	626	1,351	293	513	64	84	57	58	121	161
북	563	1,325	315	541	58	61	89	64	85	112
계	2,438	5,516	1,151	2,173	251	301	297	222	502	619

* 1976년 8월 31일 현재

《질문 15》 우리교회 주일 낮예배의 교인 출석수는 어떻게 변해 왔습니까?

답 15 ▶ 최초 18명이 23년이 지난 오늘날은 약 154배인 2,768명으로 늘었다. — 1953년 9월 6일 18명이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해 연말에는 163명으로 두터 9배가 늘었습니다. 이 1953년 말의 163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일년에 가장 많은 수의 증가를 보인 것은 1963년의 412명이었으며 한해 전에 비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1955년으로서 일년에 99.2%가 증가된 일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계속 늘어만 온 것은 아니며 1970년과 1971년에는 그 전년도에 비해 교인 출석수가 도리어 줄어든 때도 있었습니다. (표 9 참조) * 교회 주부의 통계표에 의함(1953년~1976년).

(표 9)



《질문 16》 우리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제직은 몇명이었으며 현재는 몇명입니까?

답 16 ▶ 우리교회가 처음 시작되던 1953년에는 제직이 모두 9명이었으며 현재는 그의 76배인 688명이다. — 제직수가 가장 많이 증가된 해는 122명이 증가된 1970년이요 가장 적은 수가 증가된 해는 2명이 증가된 1956년과 1959년이었습니다. 불규칙하게 증가된 제직수는 해마다 늘어 현재는 모두 688명으로 전체 교인수의 12.5%가 됩니다. 이를 남녀별로 보면 남자가 192명으로 제직전체의 27.9%, 여자가 496명으로 제직전체의 72.1%가 되는데 직분별로 세분해 보면 목사 9명, 시무장로 25명, 공로 장로 3명, 중경장로 5명, 남전도사 1명, 여전도사 6명, 공로 여전도사 2명, 안수집사 2명, 명예집사 2명, 명예권사 19명, 시무권사 94명, 남집사 147명, 여집사 373명으로 각각 나눌 수 있습니다.

이를 다시 교인수와 대비해 보면 교인 8명에 제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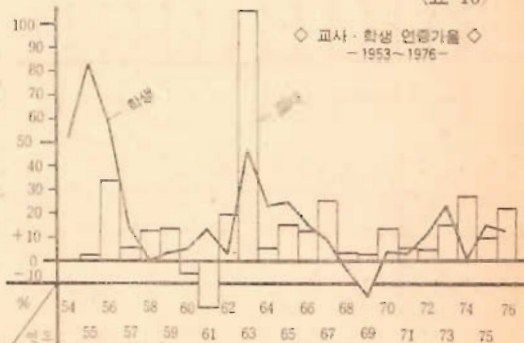
1명, 교인 613명에 목사 1명, 세례교인 155명에 장로 1명이 되는 셈입니다. * 1976년 8월 31일 현재.

□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에 대하여

《질문 17》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수 변동과 학생수 변동을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답 17 ▶ 학생수 증가율은 연평균 17.9%이며 교사수 증가율은 연평균 16.2%이다. — 따라서 각각의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 볼 때 교사수는 학생수 증가에 비해하여 증가되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해의 교사수와 학생수의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평균치와는 달리 교사수 증가의 기록이 심하여 일정한 기준이 없이 교사수가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10 참조) * 「충원 20년사」에 의함

(표 10)



《질문 18》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평균연령은 몇살이며 남녀별 구성은 어떠합니까?

답 18 ▶ 교사 평균연령은 32세이며 21세가 전체의 7.5%로서 가장 많다. — 20~29세의 20대 교사수가 전체교사의 54%로서 반수를 넘고 있습니다. 또 50세 이상의 교사가 전체의 7.8%나 되며 18~19세의 10대 교사가 전체의 2.1%로서 가장 적습니다. 이들을 또 남녀별로 보면 남교사가 전체의 43.8%, 여교사가 전체의 56.2%로서 여교사가 약간 많은 편입니다. * 1976년 8월 15일 어린이 세신자부·영아부·유치부·초년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 등 8부의 교사 280명을 조사함.

《질문 19》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학력별 구성은 어떠합니까?

답 19 ▶ 대학 졸업자가 46.4%로서 가장 많다. — 교인 전체의 학력별 구성과는 달리 조사자 280명 가운데 대졸자가 130명으로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고졸자가 106명으로 전체의 37.9%, 중졸자가 7.5%, 초대졸업자가 3.9%, 대학원 졸업자가 3.2%, 국졸자가 1.1%로서 고졸 이상이 전체의 91.4%가 됩니다. * (질문 19)와 같이 주일학교 8부의 280명을 조사함. * 교사 출신도별 구성 분포는 교인 전체와 비슷하여 생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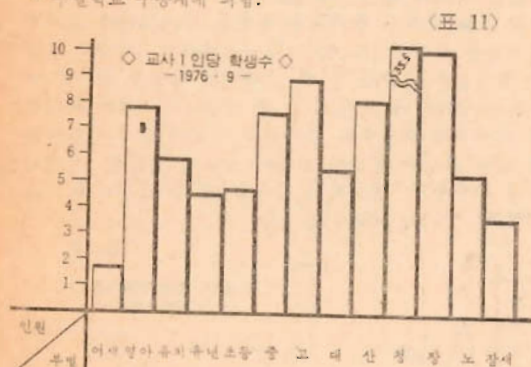
《질문 20》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사수와 학생수와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답 20 ▶ 학생 6명당 교사 1명이다. — 8월 말 현재 교사 제직 393명에 학생 출석수가 2,414명으로 평균 학생 6명에 교사 1명이 되는 셈입니다. 교사수는

■ 중현교회 교인에 대한 1문 1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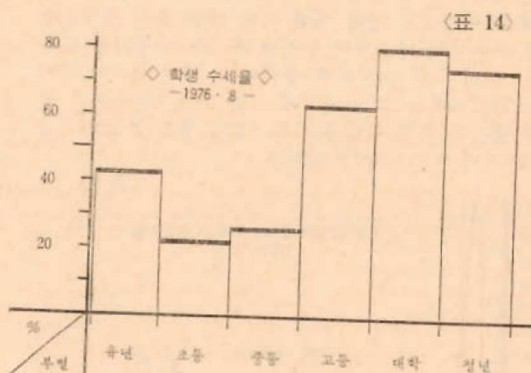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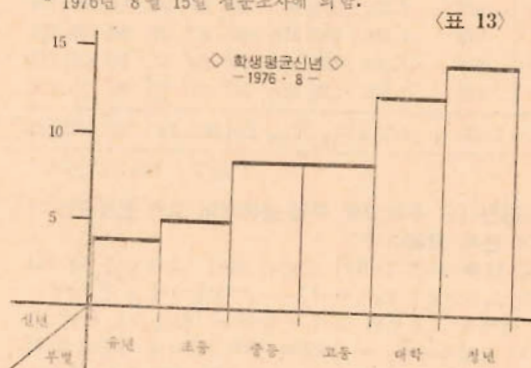
초등부 교사수가 73명으로 교사 전체의 18.6%로서 가장 많고 학생수는 초등부 학생 출석수가 366명으로 학생 전체의 15%로서 가장 많습니다. 또 교사가 주교 I부는 여자가 더 많고 주교 II부는 남자가 더 많은 반면 학생은 주교 I부는 남자가 더 많고 주교 II부는 여자가 더 많습니다. <표 11, 표 12 참조>

* 주일학교 주동지에 의함.



로 20.9%였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세율이 높아 초등부 이상의 학생중에는 67.7%가 수세 또는 학습을 담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년부가 유독 42.6%로서 수세율이 높은 것은 그 원인을 밝히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표 14 참조>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표 12)

교사·학생 남녀비교

	교사/393명	학생/2,414명
I 부	계 215	계 1,023
	남 74	남 531
	여 141	여 492
II 부	계 178	계 1,391
	남 98	남 536
	여 80	여 855

* 1976년 8월 31일 현재

□ 주일학교 학생의 신앙연한·신급·가정의 반응에 대하여

《질문 21》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평균 신앙연한은 몇년이나 됩니까?

답 21 ▶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평균 신앙연한은 약 8년이다. — 주일학교 유년부·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 등 6개부의 학생 1,639명 가운데 87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74명중 5년이상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학생은 58.5%로써 조사자 전체의 반이 조금 넘습니다. 또 주일학교에 출석한 지 1년 미만의 학생은 전체의 15.6%로 나타났습니다. <표 1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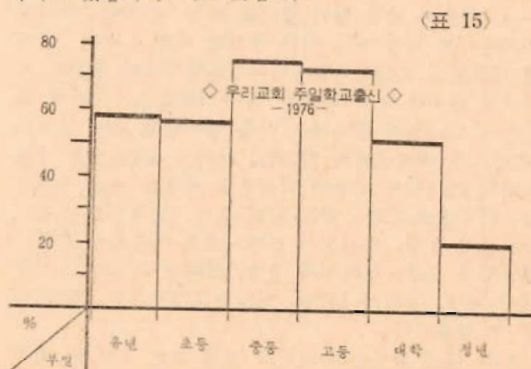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질문 22》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수세자는 몇명이나 됩니까?

답 22 ▶ 주일학교 학생의 수세자는 42.2%이다. — 유년부로부터 청년부까지의 학생 874명중 수세자는 363명으로 42.2%이었고 유아세례를 받은 사람은 183명으로

《질문 23》 우리교회 주일학교 고등부 학생중 우리교회 주일학교 중등부 출신은 몇나 됩니까?

답 23 ▶ 현 고등부 학생중 우리교회 중등부 출신은 73.6%이다. —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전체 학생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사하였을 때 우리교회 주일학교 출신은 약 60%가 되었습니다. 우리교회 주일학교를 수료하지 않고 새신자부를 거쳐 해당부의 주일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학생은 초등부가 43%로 가장 많고 유년·초등·중등부 등으로 올라갈수록 새신자 구성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표 15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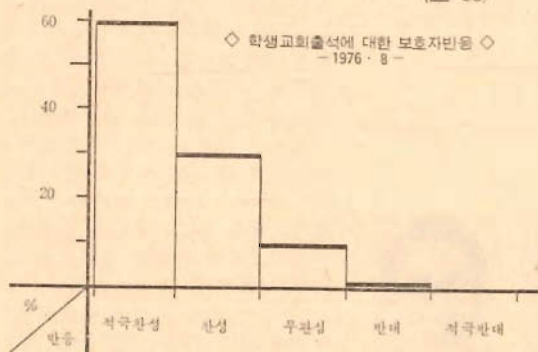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질문 24》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의 보호자 가운데 학생의 교회출석을 반대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24 ▶ 847명의 조사자중 보호자가 학생의 교회출석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은 15명으로 1.7%이다. — 학생의 교회출석을 적극 찬성하는 사람은 조사자 전체의 58.7%, 찬성의 의사표시는 29.7%, 나머지 7.8%가 미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극히 적은 수라 하더라도 집안 어른들의 반대에도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별다른 관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표 16 참고)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표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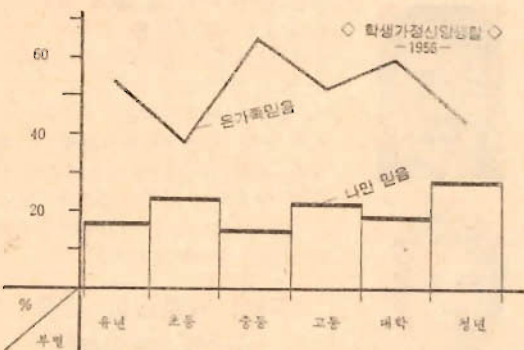


《질문 25》 가족 가운데서 혼자만 교회에 나오는 학생은 몇%나 됩니까?

답 25 ▶ 20%정도의 학생이 가족중 유일하게 크리스찬이다. —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는 학생은 51.5%로서 반수정도이며 나머지 28%가 가족중 몇 사람과 함께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표 17 참조)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표 17〉



《질문 26》 우리교회 주일학교 학생들 보호자의 직업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진 보호자가 가장 많습니까?

답 26 ▶ 상업으로서 전체 조사자의 47.4%이다. — 제일 적은 것은 정치·법률 계통으로서 0.5%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회사원 16%, 기업가 6% 공무원 5.5%, 교육자와 사무원 2.7%, 의사 1.6% 및 기타의 순입니다. (표 18 참조)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표 18〉
학생 보호자 직업

구분	공무원	교육자	기업가	회사원	사무원	상업	의사	정치·법률	기타
유년	6	8	4	2	5	1	7	8	3
초등	4	6	5	3	6	1	6	7	2
중등	4	5	6	3	8	1	7	9	2
고등	5	8	4	3	6	1	7	9	2
대학	4	2	2	3	4	1	4	5	4
청년	3	4	4	6	5	1	7	7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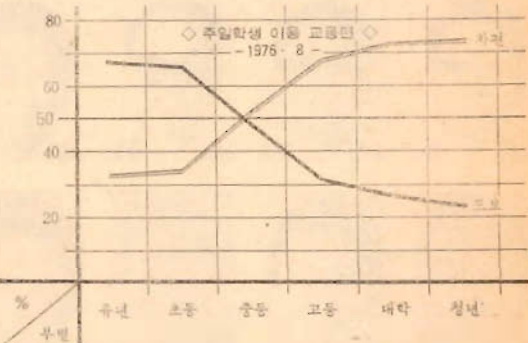
* ①②③순위는 비율이 높은 순위 * 1976년 8월 15일 현재

《질문 27》 주일학교 학생들이 평소 교회에 나올 때 자동차를 이용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27 ▶ 반수가 약간 넘는 55.5%이다. —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려면 걸거나 아니면 차편을 이용해야 되는데 걸어서 나오고 있는 학생은 전체의 44.5%입니다. (표 19 참조)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표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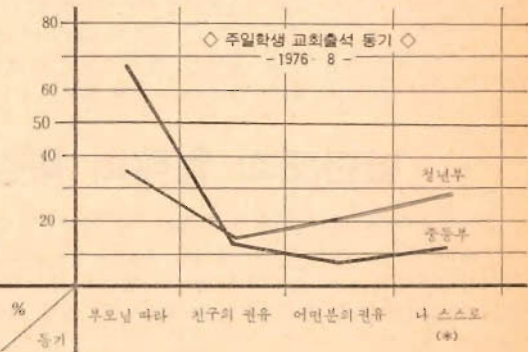


《질문 28》 주일학교 학생의 교회에 출석한 동기가 가운데 스스로 나왔다고 하는 학생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답 28 ▶ 중등부의 경우 11.5%이다. — 대체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님을 따라서 아니면 친구의 권유가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다른 사람의 권유나 스스로의 결정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편의상 중등부와 청년부를 대표로 하여 서로 비교해 보면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표 20 참조)

* 1976년 8월 15일 설문조사에 의함.

〈표 20〉



23주년 맞아 공로표창

—20년이상 근속·봉직자 16명에게—

◇ 연초에 인사관리에 획기적인 거사로 확정지은 20년 근속 혹은 ◇
 ◇ 봉직에 대한 공로표창을 본교회 설립 23주년을 맞는 9월 5일 ◇
 ◇ (9월 첫주일)에 16명을 뽑아 수고를 치하, 표창하였다. ◇

우성원·한명옥 장로를 비롯하여 20년 근속 혹은 봉직으로 표창을 받게 된 16명은 모두가 우리교회가 처음 설립되던 1953년 이후 우리교회의 성장·발전에 적지 않은 수고를 한 선한 청지기들이다. 이 제도는 정식으로 임명받고 20년간 별 과오 없이 봉직한 이들에게 치하하는 뜻으로 마련되었는데, 첫 케이스로 도미한 김광철 장로가, 두번째로 역시 이민으로 미국에 간 김성주 집사가 받은 바 있다.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합리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회봉직자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영예의 공로표창을 받은 수상자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장로——우성원·한명옥·황기성·김한홍·박창수.
- ② 권사——구경숙·계수익·이학주·이명자·이성애·김봉재·정양순·김대복·김상권.
- ③ 집사——오희명·김봉선.



(사진은 맨윗줄 왼쪽부터 우성원 장로·한명옥 장로·황기성 장로·김한홍 장로·박창수 장로, 가운데줄 구경숙 권사·계수익 권사·이학주 권사·이명자 권사·이성애 권사, 아랫줄 김봉재 권사·정양순 권사·김대복 권사·오희명 집사·김봉선 집사, 별도로 김상권 권사)



남전도회 월례회 특강

남전도회(회장 김기정)는 8월 둘째주일 월례회시에 박영관 목사(총회 신학대학 강사)로부터 「이단 종파의 도전과 한국교회」라는 연제의 강의를 들었다. 박목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의 제무장을 강조하며 어릴 때부터 소요리문답 등 교리적으로도 체계 있는 신앙 확립이 시급하다고 전해 주었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 선교대회 참석코 도미

안식년을 맞아 3개월간의 휴가를 얻어 세계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유럽으로 지난 7월 21



일 서울을 출발한 당회장 김창인 목사(사진)는 그곳 선교대회에서 다른 나라 강사들과 함께 대한민국 강사로 특별강의를 하는 등 회의에 참석하고, 서독의 하이델베르크에서 부흥회를 갖는 등 크게 활동하였다.

특히 서독에서 가진 부흥회에는 첫날부터 큰 은혜가 내려 감사하였다고 하며, 스위스 제네바에 들러 칼빈교회를 방문, 감회가 깊었다고 전했다. 지금 미국에 체류, 필라델피아 연합집회, 뉴우요르크와 시카고 등에서 계속 집회를 인도하면서 미국에 있는 한국인교회들을 돌아보는 당회장 김목사는 귀로는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경유 10월 말일 제 귀국 예정이다.

본교회 성도들—

여름행사에 많은 지원

지난 여름 각종 행사를 위해 본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기도와 봉사로 돕는 한편 각구역을 통해 재정지원을 해오는 등 호뜻한 일화가 많이 있어 일선에서 봉사하는 이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워 준다. 그 중에도 이성원씨는 유치부·유년부 모든 학생들에게 「충현」의 표식을 넣은 유니폼 린넨셔츠를 기증해 줌으로써 어린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어 못내 자랑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

다시 특별집회 시작

—9월 첫주일부터

그간 여름동안 무더위와 본교회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주일 오후 특별집회가 지난 주일(5일)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이 특별집회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의 소원으로 지난 해 부활절부터 청년부·대학부 주관으로 시작된 특히 기도시간이 많은 성회이다.

직장선교 등 힘을 기울여

—일본의 유병세 평신도선교사—

지난 4월, 우리교회에서는 첫 평신도 선교사로 임명되어 일본 후카이도로 파송된 유병세 집사(사진)에게서 여러 차례 소식이 왔다. 외과의로 그곳 시립병원에 근무하는 유집사는 일본에는 한국인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애로와 취약점이 있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계속 임무수행을 하고 있다. 유평신도선교사는 종종 모임에서 예배인도 하듯, 주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와 병원 직원들(의사·간호원 등)을 상대로 개인전도에 특히 신경을 쓰는 한편 틈이 나는 대로 축조전도나 역 대합실 등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나가 전도지 배로도 걸돌고 있다. 유집사는 편지 때마다 선교임무를 능력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고국 본교회 성도들의 계속적인 기도의 후원을 바라고 있다.



개선하고 온 농어촌전도대

—전도위원회 주최로 평가회—

지난 8월 23일(목) 전도위원회는 농어촌교회의 부흥과 농어촌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9개 전도대를 편성·파견했던 대원(50여명)들을 유치부실에 초대 그간의 수고를 치하하고, 개선하고 돌아온 농어촌전도대의 활동결과를 보고받으며 아울러 평가회를 가졌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성했던 전도대와는 달리(위에 밝혀진 사실) 제일성가대 대원 중심의 7명이 자비(自費)로 제주도 서귀포 서남교회까지 갔다 와서, 결국 우리교회가 금년 여름에 파송한 교회는 10개처, 10개의 전도대가 되는 셈이다.

대학부 「향상음악회」열어

—한국의 곡을 중심으로—

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가지는 올해 제4회 대학부 「향상음악회」가 어제(11일) 오후 7시, 성도들과 음악 애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당에서 열렸다. 약 60명의 성가대원이 출연한 이날에는 「보다 하나님의 어린양을」 「예루살렘 입성」 칸타타 「내 양을 먹이라」 등 여러 곡이 발표되었는데, 우리나라 작곡가들의 곡을 선정한 것이 특색이었다. 이 날 연주의 지휘에는 김중석 선생, 반주엔 조희영 선생이 맡았었다.

여성성가대 여름수양회

—제일성가대와 별도로—

여성성가대는 지난 8월 7일 「부르신 그대」(고전 7:17)란 주제 아래 하룻동안 여름수양회를 가졌다. 주강사에 본교회 백성룡 목사가 맡았고, 강사로 김광석 선생(예배와 찬양의 실제), 서은숙 선생(교회음악)이 같이 수고하였다. 제일성가대와는 별도로 가진 그 수양회의 참가자는 47명이었다.

성경 암송대회를 고사·퀴즈·암송 대회로

오는 9월 26일과 10월 3일 두 주일에 걸쳐 주일학교 학생을 포함한 전 교인을 대상으로 성경 고사·퀴즈·암송대회를 연다. 이처럼 종전의 암송대회가 고사·퀴즈·암송의 세가지 유형으로 바뀐 것은 몇 사람에게만 국한 시당되는 점을 고려, 각자 소질에 따라 참가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토막소식

- *교회는 저녁예배 시작시간을 7시 30분으로 당겼다.
- *교회는 추계대심방을 지난 9월 7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 *교회는 9월 8일 중헌동산에서 추석성모합동에배를 드렸다.
- *교회는 부상을 입고 어려움을 겪는 변인옥 집사를 특별구제했다.
- *구역권찰회는 9월 10~17일 등·서와 남·북의 구역요원 훈련을 가졌다.
- *또한 해외이주자 교육은 9월 6일에 있었다.
- *중헌성경학원은 성경암송·고사·퀴즈 대회에 앞서 신성종 목사의 에베소서 특강을 23~28일까지 가졌다.
- *제4회 장로수양회가 8.10~12에 있었다.
- *지난 8월 8일 주일학교 각부의 회계검사가 있었다.
- *새신자부는 오는 29일 자질향상을 위한 연구수업과 아울러 사무검열을 실시한다.
- *교육제1부(영아부~초등부)에서는 제3학기 성경시험을 9월 끝 주일에 가졌다.
- *영아부는 지난 달 18~20일간 제2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와 자모들을 위한 특강이 있었다.
- *영아부는 오늘(12일) 십계명의 위기대회를 가졌다.
- *유치부는 오는 26일 올해에 배운 찬송과 노래로 반별성가부르기 대회를 연다.
- *유년부와 초등부는 9월 대심방을 위해 각각 교사기도회를 8월 말에 가졌다.
- *중등부는 오늘(12일) 교리 및 생활문제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 *고등부는 어제(11일) 독후감발표회를 가졌다.
- *고등부 여부장이 이순녀 권사로 바뀌었다.
- *대학부는 오늘(12일) 저녁 헌신예배(강사 김명혁 박사)를 드린다.
- *청년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갖는다.
- *노년부는 첫 여름수양회를 지난 달 23~24일까지 은혜중 마쳤다.
- *노년부는 성경지식 향상을 위한 개인별성경퀴즈대회를 지난 9일에 가졌다.

연집하고 나서

*...1953년 9월 6일, 1976년 9월 5일, 23년간의 격차에서 우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놀랄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한 우리교회

는 이러한 성장이 단순히 우리만 만족하고 기뻐하라고 주어진 일이 아님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시야를 넓히고 지평을 넓혀 하나님께서 우리교회에 원하시는 그의 뜻을 올바로 받아들이야 할 것이다. 그간에 우리교회에 주신 놀라운 축복에 진정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할 우리의 일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우리교회 설립 23주년을 맞으며 「월간충현」은 몇가지 특별기획을 포함한 9월호 특집호를 펴 낸다. 우리로서는 벅찬 일이었지만 항상 매사에 선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힘이 우리의 열심에 박차를 가하게 해 주셨다. 지난 해부터의 꾸준한 노력은 이제 여기까지 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며, 이처럼 독자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음에 참여한 모두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길 없다.

*...이번 특집기획에서는 정상우 목사의 「청지기론」, 정은표 집사의 「교회인력조사」, 이형수 간사의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포토에세이 「우리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한 특집을 다뤘었다. 또한 표지에 우리교회 설립의 터를 닦은 18명의 사진을 거의 실을 수 있었다는 것은 커다란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부에서부터 시작한 정상우 목사의 「청지기론」은 전교회적으로 나아가 놓여온지도자초청훈련사까지 은혜를 끼쳤다. 구원받은 백성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확하고 선명하게 성경 안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 정목사의 청지기론, 「선한 청지기의 생활」은 누구나가 길이길이 마음관에 새겨놓고 되새김해야 할 것이다. 참고 성경귀절을 일일이 찾아가며 확실한 청지기상(像)을 정립하여 하나님 앞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어 보자.

*...오래 전부터 깊은 관심을 기울여 온 「우리교회 인력조사」 문제였지만 너무나도 벅찬 작업이었다. 옛날의 모든 등록카드를 들치고 일일이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어려움은 「공연히 손을 댔구나」하는 마음까지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그런 마음에 비례해서 「꼭 해야겠다」는 집념은 이 어려운 일을 무사히 마칠 수 있게 하였다. 도대체 이와 같은 일이 교회 발전과 또 예수 믿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하고 묻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번 일의 중요성이나 그 의의 등은 언젠가는 전교회적으로 이와 같은 조사가 실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항상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일에 모든 준비를 해 주셨다.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열성적으로 자료정리·수집에 수고해 준 청년부의 홍지향 씨, 고등부 이지훈·김경선·이승현 군, 또 신재성·정윤명·안영자 기자, 특별히 휴가중 귀한 시간을 쪼개어 도와준 신재원 씨와 편집실에 발을 들여놓자 마자 곤역을 달게 취해 준 김인숙 기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당회장 김창인 목사에 대하여 아무것도 정리되어 있는 것이 없고, 대내외로 소개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생각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 자주 오르내렸다. 차제에 당회장을 단편적으로나마 소개하게 된 것은 꼭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된다. 구미여행을 앞둔 관계로 충분한 집착을 못 가졌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다음 기회를 다시 한번 기다려 본다.

*...우리교회 설립 당시의 뒷이야기, 또한 현재 우리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교역자·당회원들의 설문을 통한 현재의 우리교회에의 조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교회를 이끌어 갈 젊은이들과의 좌담 등의 계획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교회의 좌표와 방향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지면관계상 좌담회의 모든 내용을 실을 수 없음을 끝내 안타까운 일이었다. 내일의 우리교회를 이끌어 갈 청년·대학생들이 주 안에서 고뇌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9월 특집호를 위해 애써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월간충현은 언제나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충현에서는 충현교회 식구들의 신앙간증이나 수필·시 또는 성도의 교제나 교회 발전을 위한 제언 등 200자 원고용지 8매나 16매 정도를 써 보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간충현 조직

발행인/김 창 인(당회장)

편집인/위 영 환(편집위원장)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군

편집위원/조현명·정상우·정관일

신성종·조선군·지금산

이두란·고경자

간 사/정은표·이형수·오태용

기 자/신재성·정윤명·유화자·

안영자·김인숙

>표지 설명<

고통이 없이 기쁨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교회가 이처럼 자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 모든 열성을 쏟아 부을 수 있었던 18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23주년을 맞으면서 그분들의 사진을 표지에 낼 수 있게 된 얼마나 다행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인가.

사진 ①원경식(당시 남성도) ②안종욱(공란, 당시 남학생) ③김인덕(당시 여성도) ④오진국(당시 남학생) ⑤박경숙(당시 여학생) ⑥홍수정(당시 남성도) ⑦계수익(당시 여성도) ⑧임광식(공란, 당시 남학생) ⑨성기명(당시 여성도) ⑩김천준(당시 남성도) ⑪이학주(당시 여성도) ⑫김성주(당시 남학생) ⑬백영숙(공란, 당시 여학생) ⑭한명덕(당시 여성도) ⑮김창호(당시 남학생) ⑯김은주(공란, 당시 여학생) ⑰이춘선(당시 남학생) ⑱김계웅(당시 남학생). ※당시 네 학생의 사진은 입수하지 못했음.

월간「충현」9월호 통권제32호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위 영 환

주 간/신 성 종

편집국장/조 선 군

대한 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 36

27-9937·9738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6년 9월 12일 발행

❁ 사진으로 보는 이모저모 ❁



← 잠시 귀국했던 김애리 양은 8월 15일 광복주일 저녁 예배시 교우들 앞에서 쌓아 온 실력을 보여줌으로 또다른 부드러운 감동을 주었다. 그는 이번 학기부터 음악의 세계적 명문 줄리아드대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 8월 15일 저녁에는 지도자양성부 제9기 수료식이 있었다.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되는 모습이다.



◇ 금년 처음 시작된 노년부 여름수양회가 8월 23, 24일간 열렸다. 120여명의 노년부 학생들이 모여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은혜스럽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지난 8월 29일 고등부실에서는 조경대원 참가 교단 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 강원도지역을 중심으로 총 9대의 54명이 금년 여름에도 파송되어 전도했다. 사진은 정선제일교회로 간 예배 전도 대반의 모습



◇ 제일성가대의 7명의 대원이 따로 차마로 제주도에서 지난 달 17~19일까지 전도하고 돌아왔다. 특히 어반인 형태로 전도·교육한 그 집회에는 118명의 어반인들이 모이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

아래는 금년 여름 우리교회에서 파송한 잣도대를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위하여 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정선제일교회

윤성순	조경순	최선희	최계준	신금애	전찬범	김순기	지옥연	전광우	최두규	김미영	조봉준	김경자	유선희
김영탁	안미연	전영자	유은정	최순원	유영운	강성희	이순환	심상준	최종담	강성진	박준호	조병선	송성자
이정근	안우영	정춘자	김영애	유일환	최종태	함종석	유인규	이태성	이도성	유병일	이병욱	고효저	신현순
신호근	이순녀	신승열	최완순	최갑순	신계월	인영숙	이태옥	조남순	심문섭	이정림	오인자	김정순	유복녀
엄재란	정옥희	임연순	유승수	전찬희	이윤광	전혜자	김태동	이금옥	허무강	김진수	왕시철	전병선	김옥선
고명진	최규정	이선철	황배만	최봉애	김지연	권옥순	김순복	김선옥	강선희	김길용	나기분	박연동	유덕규
이민수	김운근	장종식	함순원	조순자	서광섭	윤석민	한정애	박상균	김근호	남미경	정경자	안문현	권태욱
하봉선	최창순	손계자	김동득	임광숙	(103명)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 양덕장로교회

김용만	진순기	이준섭	이용구	한금선	이정숙	이수희	한영희	이영순	사숙희	한상남	박원근	박은선	이기순
김재동	김은자	사배환	송재규	사재용	박대선	박병화	허병학	변영옥	박기봉	전장성	박정옥	조영자	이세영
이재난	조준복	최기은	장용택	이수미	이우정	노정만	최재민	김종운	홍은표	박영래	박종식	우길순	고영훈
김미녀	김매화	김은경	정병훈	최종욱	허용구	이상기	오미경	허윤복	서애순	신정순	조기인	조영란	권오영
오명자	홍우표	최귀운	이미래	신정숙	홍현석	홍현용	홍현미	홍현아	전정수	김미자	(67명)		

□ 강원도 정선군 북면 북평제일교회

고대길	신은자	유미숙	조상래	박용봉	이필희	김경백	함재극	안정자	박옥선	홍순우	안순정	서자용	김성규
이순자	김장수	서현숙	정복순	정옥진	임진학	전태우	고혜영	남동준	황득을	전애옥	유영희	유창래	김계선
최광극	정연옥	김진현	김영자	전귀자	최인자	송관중	신선자	전세규	차화순	정금래	전준구	이근규	김경산
김옥례	전영표	이순자	유경준	전울선	김필극	배호선	김계영	김상기	이만춘	장활란	신현수	김정분	김주현
김종억	최선옥	주중희	김지수	김영철	엄정민	(62명)							

□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8리 주문진제일교회

이인자	정수길	김공덕	박선희	하진행	전한길	김두호	최영식	임지덕	김금란	유은주	김복년	김성숙	김동혁
김원자	김영애	전옥희	고광선	하인학	임성진	최영식	박옥희	김미경	김선숙	정계조	정성자	최혜영	정동열
하봉은	이옥자	장애련	박희수	손희자	이민복	김경호	정휘식	김영조	임상준	김광섭	김정철	김영철	박순희
김대근	민병자	정인만	정수영	정근이	홍순자	정남병	홍봉대	정두식	최전복	김정돌	오영호	김영수	박영순
김진수	고창준	최봉현	오준복	김홍렬	오문옥	정영자	최길자	김미영	김기호	최종대	양인출	최무언	김진철
이춘자	김세원	오우문	김인철	이인호	한영자	고창재	지장규	김성만	김승화	우재달	정영수	박영규	김경자
문순애	남상복	박준혜	양해식	김진화	(89명)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지내리 지내교회

심귀식	김유수	심윤식	박영순	심우영	심태식	박광노	심우천	원종원	심태식	심우봉	김주철	이미숙	김성훈
김봉순	심한구	원영태	이종섭	김영길	김영기	박광산	차춘자	이광훈	박광진	심영구	장학용	박종봉	박광주
(28명)													

□ 경상남도 의령군 화정면 화정교회

구병재	조우현	조균철	정점수	심대우	조대순	이삼득	박상봉	김석순	정태봉	구봉국	심재경	김종록	구상진
구영백	진두석	조영주	구갑서	전정자	구인회	김춘자	노미정	조경원	한신옥	김장문	김종하	조순남	유영장
구종희	(29명)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와룡리 금현교회

이숙자	김정숙	이재욱	박성일	이진자	한상원	한상인	김준미	김준희	장순식	이명숙	이재숙	이규중	박훈재
박용길	이선이	박경미	원용근	박창희	이명옥	민순섭	이관희	오재길	이복희	이상희	남기철	박도연	남기석
남경현	남미선	원영현	남은숙	이현숙	남궁숙	원금연	김경미	김혜경	이영자	함명현	한기복	원기연	한기현
한기원	원경숙	원순덕	원어진	원미경	최용일	원용만	원연숙	정깃난이	이성수	심재순	김지현	신태로	박수현
김은경	원시연	원하연	박수광	박광전	원종성	안윤경	박재성	박재준	원세택	이규선	조개상	박연섭	박덕애
정씨아주머니	박광운	이기석	민용섭외	조모	신희섭	신현섭	민경식	김경임	임미애	이인규	이병만	원정삼	
남창우	이영자모친	김덕진	박공봉	김완길	박영식	민경식	윤은수	남길희	강인순	우상철	원영옥	원용길	
원옥희	최성환	황순덕	조재풍	우종희	최연옥	최연옥	이정순	원복자	김필순	정오현	최종희	신동진	이미숙
이상운	신현순	이종성	신철호	장영환	최진희	송종성	이선규	윤태오	이석순	민깃난이	이명옥	(121명)	

(합계 499명)